

H

U

Limits

Expand You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24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논술가이드북

2024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논술가이드북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F

S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입학안내 문의 02-2173-2500
입학처 홈페이지 <https://adms.hufs.ac.kr>

서울캠퍼스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글로벌캠퍼스 1703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CONTENTS

^P 02	01
논술전형 주요사항 안내	

^P 13	04
한국외대생이 들려주는 논술 합격 비법	

^P 06	02
2023학년도 논술전형 결과	

^P 17	05
2023학년도 논술고사 기출문제	

^P 09	03
2024학년도 논술전형 특징	



입학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입학처 유튜브
바로가기

QR코드를 스캔하고
더 자세한 입학정보 및
업데이트 사항을
확인하세요!

<u>18</u>	1. 사회계(오전)
<u>27</u>	2. 사회계(오후)
<u>35</u>	3. 인문계(오전)
<u>42</u>	4. 인문계(오후)
<u>51</u>	5. 자연계

01

논술전형 주요사항 안내

1 |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서울캠퍼스				글로벌캠퍼스						
대학	모집단위		모집 인원	문항 유형	대학	모집단위		모집 인원	문항 유형	
영어대학	ELLT학과		12	인문계	인문대학	인문과학 계열	철학과	4	인문계	
	영미문학·문화학과		12				사학과	4		
	EICC학과		9				언어인지과학과	4		
서양어대학	프랑스어학부		12		동유럽학대학	폴란드어과		2		
	독일어과		13			루마니아어과		2		
	노어과		8			체코·슬로바키아어과		2		
	스페인어과		13			헝가리어과		2		
	이탈리아어과		6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2		
	포르투갈어과		6			우크라이나어과		2		
	네덜란드어과		6							
	스칸디나비아어과		6							
아시아 언어문화 대학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6		국제지역대학	그리스·불가리아학과		2		
	아랍어과		9			중앙아시아학과		2		
	태국어과		6			아프리카학부		5		
	베트남어과		6			한국학과		2		
	인도어과		6		경상대학	Global Business & Technology학부		7	사회계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6			국제금융학과		3		
	페르시아어·이란학과		6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5	자연계	
	몽골어과		2			통계학과		5		
중국학대학	중국언어문화학부		11			전자물리학과		5		
	중국외교통상학부		9			환경학과		6		
일본학대학	일본언어문화학부		9	생명공학과		6				
	융합일본지역학부		5	화학과		6				
사회과학 대학	정치외교학과		12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10			
	행정학과		12		정보통신공학과		3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10		반도체 전자공학부	반도체공학전공	5			
상경대학	국제통상학과		13			전자공학전공	6			
	경제학부		16			산업경영공학과			6	
경영대학	경영학부		32	융합인재대학	융합인재학부		9	인문계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4	Culture & Technology 융합대학	디지털콘텐츠학부		6			
	한국어교육과		2		투어리즘 & 웰니스학부		6			
	외국어 교육	프랑스어교육전공	2		글로벌스포츠산업학부		4			
		독일어교육전공	2							
AI 융합대학	Language & AI융합학부		7	AI 융합대학	AI데이터융합학부		5	자연계		
	Social Science & AI융합학부		7		Finance & AI융합학부		5	사회계		
국제학부			3	바이오메디컬공학부			5	자연계		
Language & Diplomacy학부			8	글로벌자유전공학부			11	인문계		
Language & Trade학부			6	기후변화융합학부			5	자연계		
합계			322	합계			164			

2 | 주요 변경 사항

내용	변경 전(2023학년도)	변경 후(2024학년도)
전형방법 변경	논술고사 70% + 학생부교과 30%	논술고사 80% + 학생부 교과 20%
자연계 논술고사 문항 수 변경	10문항	7문항*

* 고교교육과정 내용 및 수준에 맞게 평이한 수준의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수험생 부담 완화

3 |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캠퍼스	모집단위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서울	전 모집단위 (LD학부, LT학부 제외)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탐구 혹은 과학 탐구 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이고, 한국사 영역 4등급 이내
	LD학부, LT학부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탐구 혹은 과학탐구 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3 이내이고, 한국사 영역 4등급 이내

※ 신설 모집단위인 Language & AI융합학부, Social Science & AI융합학부도 '전 모집단위' 기준을 적용합니다.

※ 글로벌캠퍼스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탐구영역을 제2외국어 또는 한문으로 대체 불가합니다.

※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일부 영역만 응시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여도 인정합니다.

※ 서울캠퍼스 지원자 중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미충족자는 입학사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5 | 전형방법

가. 성적 반영비율 및 점수

구분	논술고사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계
일괄합산	800점(80%)	200점(20%)	1,000점(100%)

나. 논술고사 출제범위

- 1) 인문/사회계열 : 통합교과형으로 고교 교육과정 내
- 2) 자연계열 : 수학Ⅰ, 수학Ⅱ

다. 학교생활기록부 교과(20%)는 계열별 지정 교과(인문계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 자연계 :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전 과목을 반영합니다.(자세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은 [7.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산출방법] 참조)

※ 비교내신 적용 대상자는 논술 성적에 의한 비교내신을 적용함

라. 비교내신 적용 대상자 : [7-바.논술전형 비교내신 적용방법] 참조

6 | 전형일(논술고사)

구분	논술고사				
고사장 안내	2023.11.22.(수) 입학처 홈페이지				
전형일	2023.11.25.(토)		2023.11.26.(일)		
고사시간	[T1]	[T2]	[T3]	[T4]	
	10:00 ~ 11:30	15:00 ~ 16:30	10:00 ~ 11:30	15:00 ~ 16:30	
	90분	90분	90분	90분	
문항유형	인문계	사회계	인문계	사회계	자연계
모집단위	【서울】 영어대학 서양어대학 중국어대학	【서울】 사회과학대학 상경대학 LD학부/LT학부 Social Science & AI융합학부 【글로벌】 경상대학 Finance & AI융합학부	【서울】 아시아언어문화대학 일본학대학/사범대학 【글로벌】 인문대학/동유럽학대학 국제지역대학/융합인재대학 Culture & Technology융합대학 글로벌자유전공학부	【서울】 경영대학 국제학부 【글로벌】 자연과학대학/공과대학 AI데이터융합학부 바이오메디컬공학부 기후변화융합학부	【서울】 Language & AI융합학부 【글로벌】 자연과학대학/공과대학 AI데이터융합학부 바이오메디컬공학부 기후변화융합학부
전형장소	서울캠퍼스 지정장소				

7 |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산출방법

가. 반영교과목

모집단위 계열	반영교과	반영과목 수	반영학기	반영방법	반영지표
인문계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한국사, 역사, 도덕 포함)	해당 교과 전 과목	- 3학년 1학기까지 - 졸업자 : 3학년 2학기까지	등급환산점수 또는 원점수환산점수 중 상위값 적용	등급, 원점수, 이수단위
자연계열	국어, 수학, 영어, 과학				

※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교과, 과목을 기준으로 함

※ 진로선택과목 교과성적 미반영(단위수, 원점수, 석차등급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교과만 반영)

나. 교과별 반영비율

모집단위 계열	교과별 반영비율(%)					합계	학년별 비율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인문계열	30	20	30	20	-	100	
자연계열	20	30	20	-	30	100	없음

다.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산출방법

- 1) 적용대상 : 지원자 전원(비교내신 적용 대상자 제외)
- 2) 교과별 평균점수 산출방법

교과 평균점수 =	$\frac{\{ \text{단위수} \times (\text{등급환산점수 또는 원점수환산점수 중 상위값}) \} \text{의 합}}{\text{총 단위수}}$
-----------	--

※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평균점수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6자리 미만에서 절사합니다.

라. 점수산출지표 : 등급, 원점수 (등급환산점수 또는 원점수환산점수 중 상위값 적용)

등급	환산점수 (논술전형)	반영 교과 과목별 원점수		환산점수 (논술전형)
		국어, 영어, 사회, 과학	수학	
1	200	90점 이상	90점 이상	200
2	199	85점 이상 ~ 90점 미만	80점 이상 ~ 90점 미만	199
3	198	80점 이상 ~ 85점 미만	70점 이상 ~ 80점 미만	198
4	196	75점 이상 ~ 80점 미만	60점 이상 ~ 70점 미만	196
5	193	70점 이상 ~ 75점 미만	50점 이상 ~ 60점 미만	193
6	187	60점 이상 ~ 70점 미만	40점 이상 ~ 50점 미만	187
7	180	50점 이상 ~ 60점 미만	30점 이상 ~ 40점 미만	180
8	160	40점 이상 ~ 50점 미만	20점 이상 ~ 30점 미만	160
9	0	40점 미만	20점 미만	0

마. 실점수 산출방법 : ‘교과 평균점수 × 교과별 반영비율’의 합 (학년별 가중치 없음)

모집단위 계열	산출방법
인문계열	(국어교과 평균점수) × 0.3 + (수학교과 평균점수) × 0.2 + (영어교과 평균점수) × 0.3 + (사회교과 평균점수) × 0.2
자연계열	(국어교과 평균점수) × 0.2 + (수학교과 평균점수) × 0.3 + (영어교과 평균점수) × 0.2 + (과학교과 평균점수) × 0.3

바. 논술전형 비교내신 적용방법

- 1) 비교내신 대상자 : 논술전형 지원자 중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출신자
- 국내 고등학교 2015년 2월 이전 졸업자(2015년 2월 졸업자 포함)
-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이 전부 없거나, 일부 교과의 성적이 없는 자

- 2) 비교내신 적용방법

- 논술전형 지원자 중 비교내신 대상자의 경우, 논술고사 성적으로 지원 모집단위별로 등급(총 9등급)을 계산하여 비교내신을 산출합니다.
- 등급 계산은 ‘[석차+(동석차 인원수-1)/2]/지원 모집단위 응시자수(결시자 제외)x100 = 중간 석차 백분율’을 계산하여 중간 석차 백분율에 따라 등급을 부여합니다.(중간 석차 백분율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6자리 미만에서 절사합니다.)
- 논술고사에 의한 비교내신 등급표 (교과)

등급	중간 석차 백분율	환산점수	등급	중간 석차 백분율	환산점수
1	상위 4% 이내	200	6	상위 60% 초과 - 77% 이내	180
2	상위 4% 초과 - 11% 이내	199	7	상위 77% 초과 - 89% 이내	170
3	상위 11% 초과 - 23% 이내	196	8	상위 89% 초과 - 96% 이내	150
4	상위 23% 초과 - 40% 이내	193	9	상위 96% 초과	130
5	상위 40% 초과 - 60% 이내	187			

8 | 동점자 처리 기준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아래의 성적순으로 선발합니다. 아래의 동점자 처리 기준을 적용하고도 성적 총점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처리합니다.

가. 논술고사 성적순

나.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순

다.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영역별 성적순 (교과 영역 적용순서는 아래와 같음)

- 1) 인문계 모집단위 : 국어 → 수학 → 영어 → 사회
- 2) 자연계 모집단위 : 수학 → 과학 → 영어 → 국어
- 3) 비교내신 적용자의 경우 비교내신 등급표에 의한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환산점수를 해당 교과 영역별 적용비율로 곱하여 변환한 점수를 해당 교과 영역별 점수로 인정하여 동점자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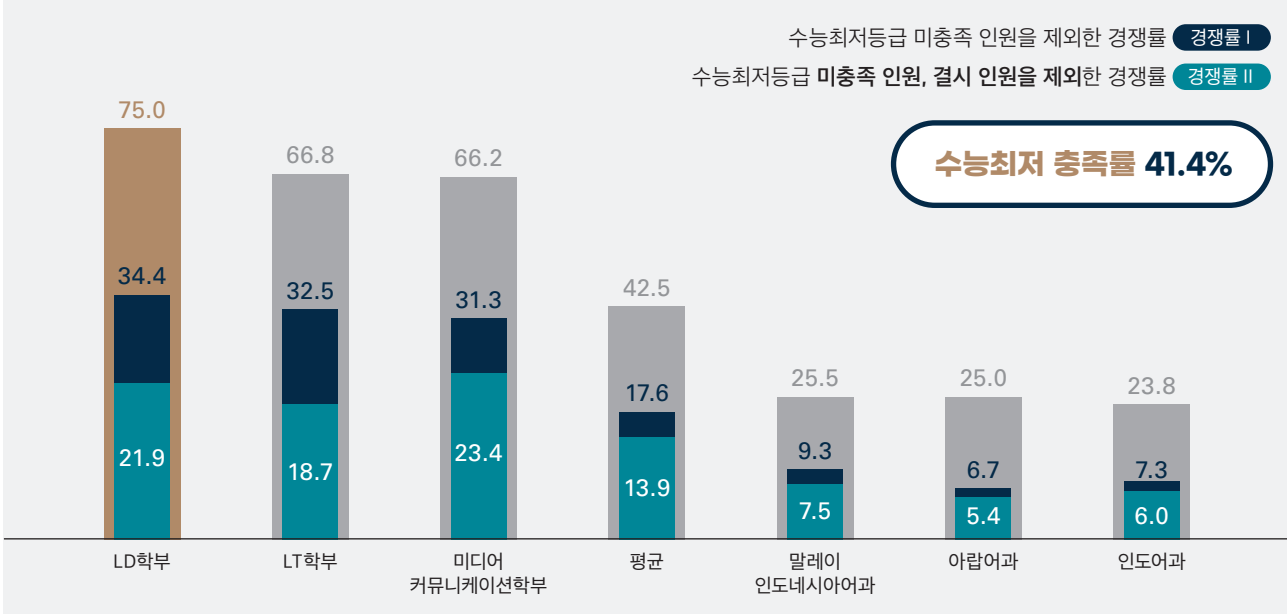
자세한 사항은 한국외국어대학교 2024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을 통해 확인바랍니다.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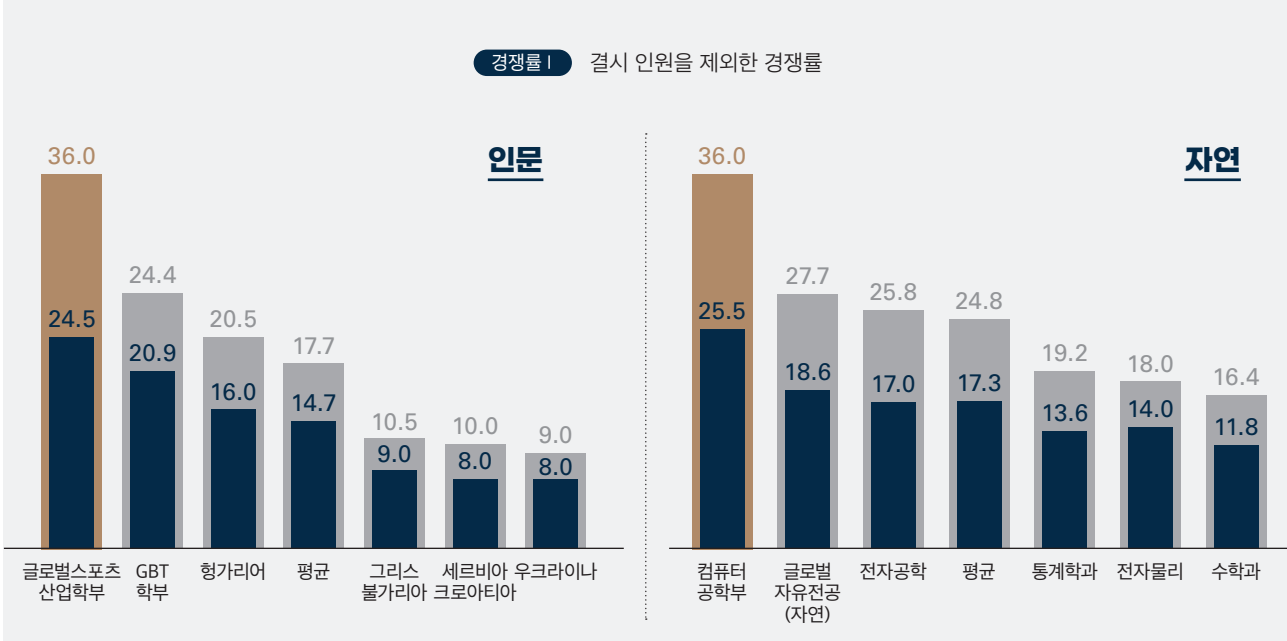
2023학년도 논술전형 결과

1 | 경쟁률 현황

가. 서울캠퍼스



나. 글로벌캠퍼스



2 | 세부 전형결과 현황

가. 서울캠퍼스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2023학년도 전형결과				
			2023	2024	경쟁률	실질경쟁률'	총원율	논술평균	학생부평균
영 어	ELLT학과		12	12	37.3	14.9	41.7	679.1	297.2
	영미문학·문화학과		12	12	36.8	13.9	25.0	676.5	297.0
	EICC학과		9	9	35.4	15.1	11.1	677.6	297.4
서 양 어	프랑스어학부		11	12	34.1	10.9	9.1	677.0	296.3
	독일어과		14	13	36.0	12.4	21.4	678.8	297.0
	노어과		8	8	33.6	10.9	12.5	669.5	295.7
	스페인어과		13	13	35.4	12.0	15.4	671.4	297.2
	이탈리아어과		6	6	32.8	10.8	50.0	667.4	294.4
	포르투갈어과		6	6	33.8	9.3	16.7	670.8	296.1
	네덜란드어과		6	6	26.8	8.3	33.3	670.8	294.7
	스칸디나비아어과		6	6	29.8	9.5	16.7	666.1	297.1
	아 시 아 언 어 문 화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6	6	25.5	7.5	16.7	656.4
아랍어과		9	9	25.0	5.4	22.2	652.4	296.6	
태국어과		6	6	30.2	6.0	33.3	653.8	293.1	
베트남어과		6	6	26.3	8.0	0.0	646.7	295.1	
인도어과		6	6	23.8	6.0	16.7	653.9	296.8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6	6	28.2	7.8	0.0	641.9	295.7	
페르시아어·이란학과		6	6	26.7	5.3	16.7	644.1	295.6	
몽골어과		2	2	29.5	6.5	0.0	644.8	295.9	
중 국 학		중국언어문화학부		11	11	30.1	9.6	0.0	666.4
	중국어교통상학부		9	9	31.6	10.4	11.1	674.6	293.0
일 본 학	일본언어문화학부		9	9	35.9	10.1	44.4	652.1	295.7
	융합일본지역학부		5	5	31.2	9.4	20.0	654.2	292.8
사 회 과 학	정치외교학과		12	12	59.3	18.9	16.7	682.7	296.4
	행정학과		12	12	58.0	21.2	16.7	681.3	297.0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10	10	66.2	23.4	10.0	672.4	294.1
상 경	국제통상학과		13	13	47.8	17.5	23.1	680.8	296.7
	경제학부		16	16	49.6	16.6	18.8	681.3	296.5
경영	경영학부		33	32	64.7	22.2	30.3	677.5	297.1
사 범	영어교육과		4	4	41.8	10.5	0.0	649.3	296.2
	한국어교육과		2	2	47.5	14.0	0.0	652.2	297.8
	외국어 교육 학부	프랑스어교육전공	2	2	34.0	8.0	0.0	673.0	294.1
		독일어교육전공	2	2	39.5	10.0	0.0	665.0	295.7
		중국어교육전공	2	2	35.0	6.5	50.0	658.5	295.7
AI 융합	Language & AI융합학부		-	-	-	-	-	-	-
	Social Science & AI융합학부		-	-	-	-	-	-	-
국제학부			3	3	48.0	18.7	66.7	665.7	296.2
Language & Diplomacy학부			8	8	75.0	21.9	12.5	674.4	297.8
Language & Trade학부			6	6	66.8	18.7	16.7	680.2	297.2
서울캠퍼스 소계			309	308	42.5	13.9	20.1	666.0	296.0

* 실질경쟁률 :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고, 논술에 실제 응시한 경쟁률

** 논술 및 학생부 성적은 최종등록자 기준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2023학년도 전형결과				
			2023	2024	경쟁률	실질경쟁률'	총원율	논술평균	학생부평균
인문	인문과학계열	철학과	5	4	14.6	12.0	40.0	650.6	291.6
		사학과	5	4	15.6	12.6	0.0	663.9	286.6
		언어인지과학과	5	4	15.8	13.2	60.0	647.3	294.9
동유럽학	폴란드어과		2	2	15.0	14.5	0.0	655.0	297.4
	루마니아어과		2	2	14.5	11.5	0.0	651.3	292.2
	체코·슬로바키아어과		2	2	16.0	12.0	0.0	651.5	295.1
	헝가리어과		2	2	20.5	16.0	0.0	670.5	288.8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2	2	10.0	8.0	0.0	660.8	289.5
	우크라이나어과		2	2	9.0	8.0	0.0	642.5	293.2
국제지역	그리스·불가리아학과		2	2	10.5	9.0	0.0	648.7	293.9
	중앙아시아학과		2	2	14.5	12.0	50.0	650.0	285.9
	아프리카학부		6	5	12.8	11.2	33.3	643.0	290.0
	한국학과		2	2	18.0	13.0	0.0	663.3	295.1
경상	GBT학부		8	7	24.4	20.9	0.0	671.2	293.8
	국제금융학과		3	3	18.7	13.7	0.0	672.7	292.0
자연과학	수학과		5	5	16.4	11.8	80.0	478.8	288.6
	통계학과		5	5	19.2	13.6	60.0	504.0	283.6
	전자물리학과		5	5	18.0	14.0	20.0	506.6	287.7
	환경학과		6	6	22.2	15.0	83.3	411.8	284.7
	생명공학과		6	6	24.3	15.8	50.0	452.9	290.3
	화학과		6	6	19.3	14.5	16.7	529.1	282.0
공과	컴퓨터공학부		11	10	36.0	25.5	54.5	550.8	290.1
	정보통신공학과		3	3	25.0	17.0	66.7	501.7	286.0
	반도체전자공학부	반도체공학전공	-	5	-	-	-	-	-
		전자공학전공	6	6	25.8	17.0	33.3	546.0	290.5
	산업경영공학과		6	6	23.8	17.0	83.3	478.3	290.5
융합인재	융합인재학부		14	9	20.0	17.1	28.6	661.0	293.2
Culture & Technology 융합	디지털콘텐츠학부		-	6	-	-	-	-	-
	투어리즘 & 웰니스학부		-	6	-	-	-	-	-
	글로벌스포츠산업학부		2	4	36.0	24.5	0.0	647.7	296.5
AI융합	AI데이터융합학부		-	5	-	-	-	-	-
	Finance & AI융합학부		-	5	-	-	-	-	-
바이오메디컬공학부			4	5	25.8	18.0	0.0	457.6	295.5
글로벌자유전공학부			11	11	19.3	16.5	9.1	661.2	294.0
기후변화융합학부			-	5	-	-	-	-	-
글로벌캠퍼스 소계			164	164	20.8	15.8	31.7	597.3	290.7

* 실질경쟁률 : 논술에 응시한 경쟁률

** 논술 및 학생부 성적은 최종등록자 기준

03

2024학년도 논술전형 특징

1 | 고교교육과정 준수 노력

고등학교 교사 참여



- 논술전형 출제와 검토에 고교 교사가 참여하여 제시문 발제 및 문항 작성 시 핵심 개념을 고교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도록 도움
- 자료 출처를 명시함으로써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고교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재구성

2015 개정 교육과정



- 출제 문항과 출제 의도가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학생의 역량을 평가하는 문항 출제
- 교과별 성취기준에 적합한 수준으로 출제하여 수험생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

적절한 시간과 분량



- 시험 시간과 분량을 적정하게 조절하여 수험생이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문항을 제시

2 | 논술고사 문제유형

인문계				
문제	유형	배점	제시문	시험시간
1	분류·요약	240	통합교과형 (영어제시문 1개 포함)	90분
2	비판·평가	240		
3	적용·추론	320		
사회계				
문제	유형	배점	제시문	시험시간
1	분류·요약	240	통합교과형 (통계·도표자료 1개 포함)	90분
2	비판·평가	240		
3	적용·추론	320		
자연계				
문항수	유형	배점	제시문	시험시간
7문항	계산능력, 이해능력, 추론능력, 문제해결능력	100점 만점 > 800점 환산	수학Ⅰ, 수학Ⅱ	90분

3 | 논술고사 출제방향 TIP

가. 인문계/사회계

■ 한국외대 논술고사는 통합논술을 지향합니다.

통합교과형 논술은 단순 암기를 통한 문제 풀이를 지양하고, 기본개념과 원리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이를 문제 해결에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통합논술의 특징은 첫째, 제시문의 형식과 분야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설득적 요소와 설명적인 요소가 담긴 글, 정서를 표현하는 문학 작품 등 다양한 형식의 글이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분야 등에 걸쳐 다채롭게 제시됩니다. 둘째, 문제가 세분화 된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다양한 제시문을 바탕으로 논리적 추론 능력, 비판적 사고력과 응용력,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복합적인 문항이 주어집니다.

■ 한국외대 논술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출제합니다.

논술고사의 출제 전 과정에 현직 고등학교 교사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출제 이후에 단순히 감수를 하는 수준을 넘어서, 본교 교수진들과 함께 출제방향 설정, 지문선정, 문항 출제, 감수 등 전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논술고사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시문을 선정할 때에는 교과서와 EBS 교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교과서에 실리지 않은 제시문의 경우 그 핵심 내용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다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합니다.

■ 한국외대 논술고사는 모집단위에 따라 영어지문 또는 통계 및 도표 자료가 주어집니다.

인문계의 영어지문의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다루어지는 어휘나 구문 수준(고등학교 2학년 수준)에서 출제되므로 기본에 충실하게 대비하면 됩니다. 전부 해석하지 못하더라도 국문 제시문의 내용으로 충분히 유추가 가능합니다. 사회계 모집단위의 경우에는 통계 및 도표, 그래프 등이 통합논술을 위한 자료의 영역으로 제시됩니다. 자료해석능력 평가용이며, 수학적 배경지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한국외대 논술고사는 사고 과정 중심의 문제를 출제합니다.

한국외대 논술고사는 단편적 결과만을 서술하는 유형이 아니라 논리적 사고 과정과 이를 지지하는 타당한 근거를 함께 밝히는 과정 중심의 문제 유형으로 출제됩니다. 이를 통해 수험생들이 스스로 주어진 조건과 상황을 분석하고 순차적으로 답안을 구성하는 역량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나. 자연계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수학Ⅰ과 수학Ⅱ에서만 출제합니다.

한국외대 자연계열 논술고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수학Ⅰ과 수학Ⅱ에서만 출제됩니다. 이 외 일반선택과목인 미적분이나 확률과 통계, 공통과목인 수학, 진로선택과목(기하 등), 전문교과에서도 출제하지 않습니다.

■ 풀이과정이 복잡하지 않고, 이해하기 쉬운 문제로 출제합니다.

이해하기 어렵거나 풀이과정이 과도하게 복잡한 문제는 출제하지 않습니다. 수학적 개념과 기본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진행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수학적 논리가 타당한 경우 부분점수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교과서 및 교과서를 기반으로 하는 교재만으로 충분히 논술전형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와 교육과정에서 사용하는 기호와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고교 교육과정에서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성취기준과 행동영역(계산능력, 이해능력, 추론능력, 문제해결능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문제를 출제합니다. 교과서에서 제시한 예제 및 유제 등을 충분히 반영하였기 때문에 성실하게 학교수업에 참여한 학생이라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4 | 논술고사 문제유형 TIP

가. 인문계/사회계

■ 분류·요약형 문제

분류·요약형 문제는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문항으로, 제시문들의 문제에 맞게 분류한 후,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간결하게 서술해야 합니다. 이때 접속어나 연결 어구를 적절히 사용하면 제시문을 자연스럽게 연관시키고 효율적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핵심어는 보통 제시문 속에 나타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회적인 표현이나 예시를 통해 주제를 암시하는 제시문이 주어질 수도 있는 만큼 적절한 어휘를 새롭게 찾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제를 암시하는 제시문이 주어질 수도 있는 만큼 적절한 어휘를 새롭게 찾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문항에서 범하기 쉬운 실수는 제시문의 구절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비록 제시문 내 문장이 요지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을지라도 이를 그대로 옮긴다면 독창성이 발휘된 좋은 요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바꾸거나 제시문에 사용된 다른 핵심어와 연결하여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판 평가형 문제

비판 평가형 문제는 논지에 동의하거나, 또는 논지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논술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서로 상반된 입장의 제시문이 주어지고 하나의 입장을 자유롭게 선택해 상대방 의견을 비판하게 하는 경우, 자신의 관점을 충분히 대입하여 논술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상반된 의견 중 하나를 지칭해, 자신의 견해와 상관없이 한 쪽 입장을 비판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의견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 어떤 논리를 적용하여 비판할 수 있는지 평소 연습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한 입장의 장단점과 예시를 서술할 때, 제시문에 이미 거론된 내용들만 반복해서 언급한다거나 지나치게 판에 박힌 사회현상만을 논술할 경우, 식상한 글이 될 수 있습니다. 장단점에 대한 창의적인 분석과 참신한 예시를 위해서는 사회현상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글을 읽거나 토론을 통해 입장을 논리적으로 표명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 적용 추론형 문제

적용 추론형 문제는 영어지문 또는 도표나 그래프를 바탕으로 제시문 분석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유형의 핵심은 제시문을 통해 습득된 정보를 토대로 새로운 사실을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우선, 자료에서 주어진 명제 조건을 확인하고 적용의 내용과 대상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질문에 이미 절반의 답이 들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문제를 여러 번 읽어 출제자의 의도를 완벽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무엇을 어디에 적용하여 추론해나갈 것인지 숙지하고 단계적으로 답안을 서술해야 가야 합니다.

적용 추론형 문제는 출제자가 의도한 답안의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바, 자료의 단순 이해보다는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을 발휘하여 단계적, 논리적 서술에 무게 중심을 두고 명확한 언어로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자연계

■ 교과서의 수학적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는 능력을 평가

계산 위주가 아닌 교과서에서 주어진 수학적 개념과 성질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로 출제합니다. 교과서의 내용 중 개념의 이해도를 측정하는 문제, 수학적 개념을 보다 심도 있게 다루는 영역을 중심으로 학습하세요. 단순히 공식을 암기하여 숫자를 대입하여 답을 얻어내는 방식이 아닌 수학적 개념과 성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다양하게 응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능(수학영역) 준비만으로도 논술전형 준비가 가능

교과서를 기반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수학Ⅰ과 수학Ⅱ에서만 출제하기 때문에 수능 선택과목 대비에 대한 부담 없이 공통과목 준비만으로도 충분하며, 논술시험을 별도로 준비하지 않고 수능에만 집중한 학생도 충분히 논술전형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5 | 논술전형 CHECK POINT

☑ 서울캠퍼스 지원자는 수능시험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매년 서울캠퍼스 논술전형 지원자의 60~65%가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충족과 논술시험 결시로 탈락하고 있습니다. 서울캠퍼스 지원자들은 논술고사를 준비하는 것과 더불어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을 위한 수능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 실질경쟁률을 보면 합격가능성이 보인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앞서 언급한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충족자와 논술시험 결시자 발생으로 대부분 모집단위의 실질경쟁률이 1/3수준으로 낮아집니다. 하지만 최초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모집단위들의 경우에는 수능 이후에도 15:1 이상의 경쟁률을 유지하기 때문에, 전년도 입시 결과를 참고하여 실질경쟁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학과에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논술전형에 학생부 교과와 실제 영향력은 매우 적다!

논술전형에서 학생부 교과성적의 등급 간 환산점수 및 원점수 환산점수 차이는 논술시험 문항별 채점 시 발생하는 점수 차이에 비해 굉장히 적습니다. 1,000점 만점(논술시험 800점, 학생부 교과 200점)에서 교과성적 차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논술고사에서 충분히 만회가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유형 파악과 시간조절, 모의논술과 기출문제를 통해 새롭게 바뀐 한국외대 논술시험 유형을 파악해 봅시다.

☑ 실제로 쓰는 경험이 중요하다!!

출제유형을 철저하게 익히고, 기출문제 및 모의논술문제를 실전처럼 풀어보세요. 채점기준 및 예시답안을 통해 자신의 답안과 비교하며 점검해보세요.

6 | 논술전형 관련 FAQ

Q1. 수능최저등급의 영향력은 어느정도 인가요?

A1. 수능최저등급은 서울캠퍼스에만 설정되어 있고, 글로벌캠퍼스는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년도 서울캠퍼스 수능최저등급 충족률은 41.4%였고, 실제 응시자 기준의 서울캠퍼스 실질경쟁률은 최초 42.5에서 13.9까지 낮아졌습니다.

Q2. 글로벌캠퍼스 실제경쟁률은 어느정도 인가요?

A2. 글로벌캠퍼스는 수능최저등급은 없지만, 결시율이 24%정도로 실제 응시자 기준의 글로벌캠퍼스 실질경쟁률은 최초 20.8에서 15.8까지 낮아졌습니다.

Q3. 학생부교과의 영향력은 어느정도 인가요?

A3. 전형방법이 논술 80%+학생부 20%이지만 실제 학생부 교과성적의 영향력은 미미합니다. 그 이유는 논술전형 문항별 점수 등급 구간이 학생부교과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학생부교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점수차이 7점)

Q4. 학교부교과는 어떤 과목을 반영하나요? 진로선택과목도 반영하나요?

A4. 공통/일반 선택과목에 한하며, 진로선택과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반영교과는 인문계열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사회(한국사, 역사, 도덕 포함) 교과 전과목을, 자연계열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교과 전과목을 반영합니다.

Q5. 학생부교과 산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5. 한국외대 교과 산출방법은 등급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점수도 활용을 하기 때문에 기존 등급만 활용했을때의 등급보다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등급과 원점수 중 상위값을 적용하는데 예를 들어 국어교과 중 2등급인 과목이 있는데, 원점수가 90점 이상 이라면 1등급의 점수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Q6. 한국외대 논술전형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A6. 한국외대 논술전형은 인문계열 / 사회계열 / 자연계열, 총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Q7. 논술고사 시험 장소는 어떻게 되나요?

A7. 서울캠퍼스, 글로벌캠퍼스 지원자 모두 서울캠퍼스에서 논술고사가 진행됩니다.

Q8. 연필로 써도 되나요?

A8. 네, 연필과 샤프, 볼펜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검정색 필기구만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는 사용할 수 없고, 지우개는 사용 가능합니다.

Q9. 답안지의 빈칸을 넘겨서 작성하면 감점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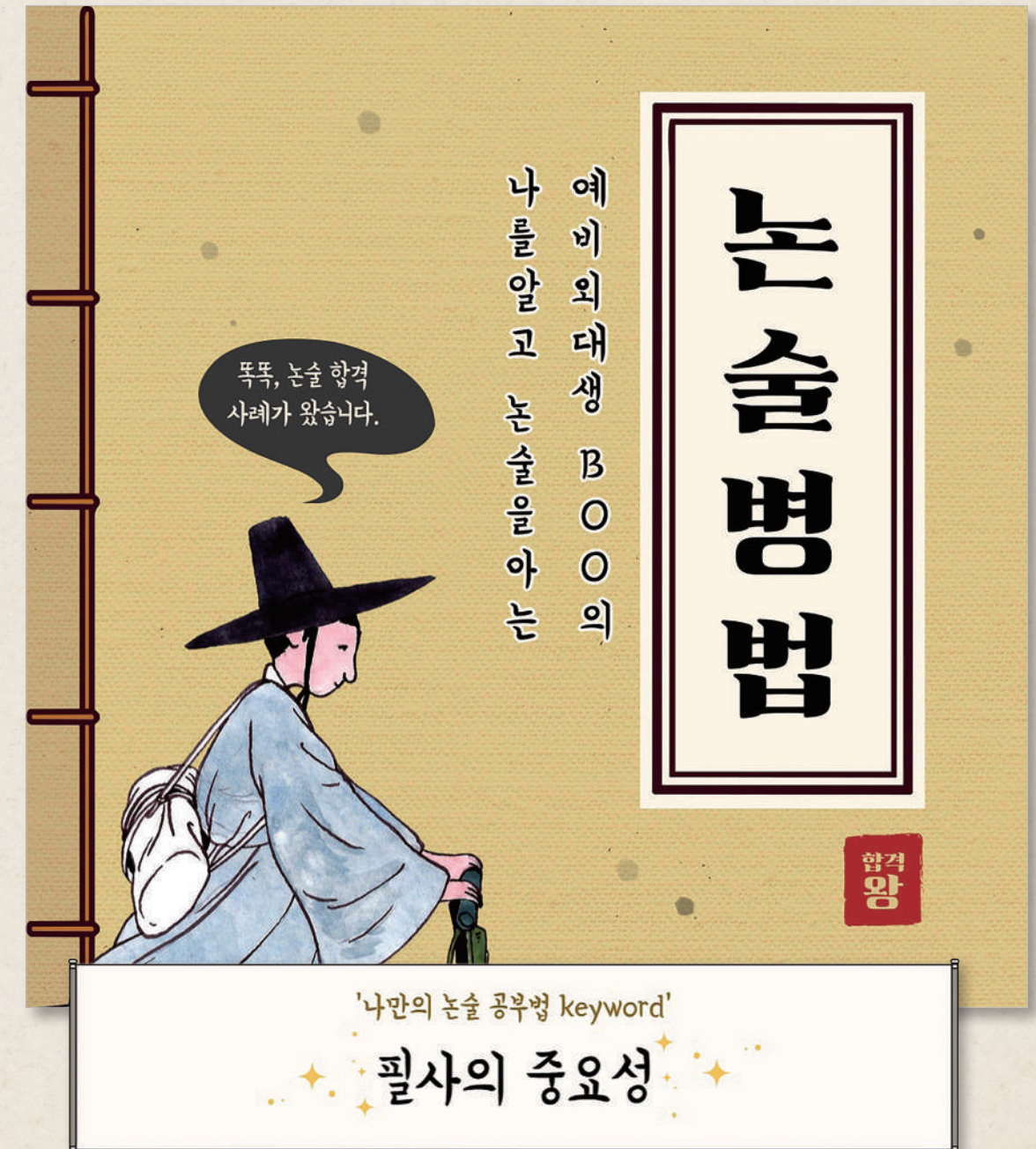
A9. 분홍색 칸을 포함한 빈칸 안에만 작성하시면 감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분을 넘어서서 공백에 답안을 작성하시면 일부 감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04

한국외대생이 들려주는 논술 합격 비법

국제학부 논술전형 합격생

※ 이 학습법은 인문계·사회계 논술 기준이며, 이 학습법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각자만의 적합한 공부법은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사항으로만 봐주세요.



一 논술방법 하나.

제한된 시간에 맞춰 논술 기출 시험문제를 푼다.

주의

절대 해설 또는
모범답안을 보아서
안 된다!
오직 자신의 힘만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것.



二 논술방법 둘.

본인의 답안지와 모범답안을 비교하며 해설을 본다.

자신의 답안이 모범답안과 많이 다르다고 해도 절대 낙담하지 맙시다.



< 여기에서 꿀 TIP! >

색깔펜 준비

해설을 참고하여 본인의 답안지에서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색깔펜으로 체크하고, 이를 모범답안에서는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지 아주아주 상세히 볼 것.

三 논술방법 셋.

모범답안을 필사한다.

단계설명

대학교에서 원하는
모범답안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 문체를
자신에게 체화시키기
위한 단계이다.
(모범답안 암기 절대
아님!!)



四 논술방법 넷.

새 종이를 가져와서 같은 시험 문제를 다시 풀어본다.

주의

제한된 시간에 맞춰 문제를 풀어야 하며, 해설과 모범
답안 그리고 처음 본인이 쓴 답지도 모두 보면 안 된다.

(답을 암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모범답안과 해설과 다른 답안을 썼다고
해도 괜찮다. 반복 훈련을 계속해서 한다면
it's no problem!)

五 논술방법 다섯.

필사를 반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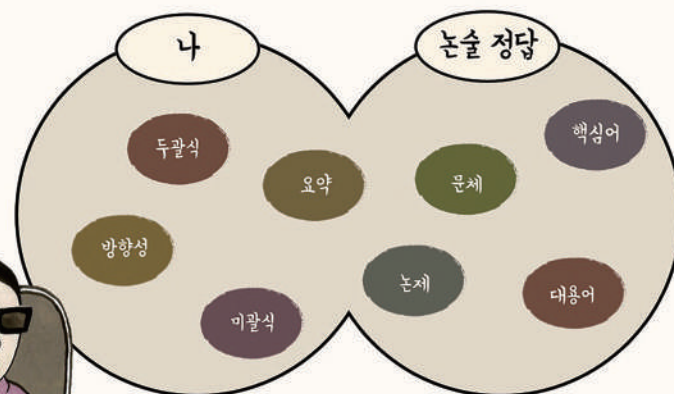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모범답안 베껴쓰기는 절대 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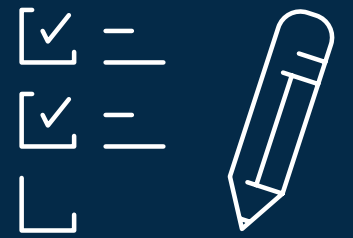
이 단계는 한국외대에서 제시한 모범답안이 두괄식 구성인지 미괄식 구성인지, 어떤 핵심어나 대용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해설을 참고하여 모범답안과 자신의 답안을 끊임없이 보면서 본인이 간과하고 있던 부분이 무엇이었는지를 체크하고,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논제에 부합하도록, 대학에서 요구하는 방향성에 적합하게끔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지요. 더불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례적인 구조의 문제가 출제된다고 할지라도 답안 구조를 적절하게 변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본인만의 문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답안이 모범답안이 되는 그 날까지 반복 또 반복!

最後 논술방법의 끝

나를 알고 논술 정답을 아는 그대



서로 通 통 하였다!



05

2023학년도 논술고사 기출문제

1. 사회계(오전)

가. 문제지



한국외국어대학교 2023학년도 논술전형 논술고사 문제지 (사회계)

2022. 11. 26(토) [오전] 10:00 ~ 11:30

고사실번호		지원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	--	--------	--	------	--	----	--

[유의사항]

1. 시험 시간은 90분입니다.
2. 답안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볼펜, 연필, 또는 샤프를 사용해야 합니다.
3. 반드시 문항별 답안지 작성영역에 답안을 기재해야 합니다.
4. (찍어쓰기 포함) 답안의 정해진 작성 분량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답안 영역에 작성한 내용만 인정됩니다.
5. 답안에 자신을 드러내는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6. 답안에 제목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른바 ‘인국공 사태’는 청년세대의 불공정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인국공 사태 이후, 청년세대 가운데 상당수는 “능력주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조건의 하나”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32세 대학원생 K씨는 “할당제는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고 또 다른 차별을 낳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학교든 회사든 각 조직이 본연의 설립 목적을 잘 달성하려면 능력에 따른 인재 선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IT 기업을 창업하여 성공한 L씨는 “창의적인 재능과 능력을 바탕으로 정당한 절차를 통해 부를 축적했다면 재산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부유세와 같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과도한 세금 부과에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 고등학교 교과서 『생활과 윤리』 및 <한국경제> (2021. 6. 8.) 재구성

(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1년 11월에 민족독립을 앞두고 건국의 원칙과 방안을 담은 건국강령을 발표했다. 이 강령은 1장 총강, 2장 복국(復國), 3장 건국 등 총 22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임시정부는 삼균주의(三均主義)를 핵심 골자로 한 헌법을 제정하여 정치, 경제, 교육의 실질적 균등을 도모하고, 전국의 토지와 주요 산업의 국유화를 이룩하며, 전국의 학령 아동 전체에 대한 무상 의무 교육을 시행하여 호혜 평등의 민주국가를 건설하려는 방도를 제시했다. 그러나 해방 후 임시정부 세력이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약화됨에 따라 건국강령과 그 기초가 된 삼균주의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게 되었다.

* 삼균주의: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실현하여 개인·국가·민족 간의 균등을 이룬다는 사상.

- 고등학교 교과서 『한국사』

(다)

반도체 소재 제조업체인 N사의 경영진은 종전의 호봉제를 폐지하고, 기본급을 보장하면서 성과급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기로 하였다. 성과급제는 1년 단위로 각 직원의 성과를 평가한 뒤 급여를 결정해 지급하는 제도로, 기본적으로 업적이라는 차등적 기준이 강조되는 보수체계이다. 성과급제의 부분적인 도입 이후 N사 직원들의 직무만족도는 전반적으로 향상되었고, 이는 N사의 성과지표 향상으로 이어졌다.

이에 고무된 N사는 성과에 따른 보수의 차이를 더욱 크게 하는 방향으로 성과급제를 확대 시행하였다. 그 결과 N사는 매출액이 계속 상승하였다. 그러나 성과평점이 높은 소수 직원들은 만족도가 크게 증가하였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평점을 받은 다수 직원들은 연봉 저하로 불안감이 크게 고조되었다. 이로 인해 직원들 사이의 위화감이 조성되어 근무 환경이 불안정해졌다.

- <한국경제> (2020. 1. 2.) 재구성

(라)



<홍수전의 동상>

아편전쟁 이후 청나라의 국가적 위신이 크게 떨어지고, 백성들의 생활은 궁핍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수전은 크리스티교의 영향을 받아 배상제회(拜上帝會)를 조직하고, 만주족을 멸망시키고 한족을 부흥시킨다는 ‘멸만흥한(滅滿興漢)’의 가치를 내세워 태평천국을 건설하였다. ‘태평천국’이라는 이름은 상제의 명령과 가호를 받아 평화롭고 평등한 이상천국을 수립한다는 염원을 담고 있다. 태평천국 정부는 그들의 이상향을 ‘천조전무제도’로 구체화하여 발표하였다. 이는 중국의 전통적인 대동(大同) 이념을 바탕으로 토지를 공유로 하고 남녀 균등히 할당하며, 전체 잉여 물자를 공유로 하여 차별과 대립이 없는 세계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실제 홍수전은 거병 이후에 군대 내에서 이러한 세계를 실현하고자 노력했고, 이를 사회 전체에게까지 적용하려고 시도했다.

- 고등학교 교과서 『세계사』

(마)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상당수가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지역에 몰려 살고 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에 17만 명, 카자흐스탄에 11만 명가량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 고려인 가운데 노년층의 상당수는 과거 소련연방 시대를 그리워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소련연방에서 독립한 이후 민족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시장경제를 도입함에 따라 이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탓이다.

알마티에서 만난 민족주의 혁명운동가 이동휘 선생의 손녀 류드밀라(82)씨는 “소련연방 시대에는 굶으면 다 굶었고, 일하면 다 일하고, 동지 정신이 있었는데 지금과 같은 시장경제는 그런 게 없어. 모두 다 저 먹고살기만 바쁘지.”라며 당시를 그리워했다. 소련연방 시대 집단농장에서 일하며 청춘을 모두 바쳤다는 타슈켄트 인근의 강 할머니는 “여기 사람들은 모두 소련연방 시대를 그리워한다.”라고 말했다.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아프면 공짜로 치료받고 배우고 싶으면 배우고, 없어서 못사는 사람들은 없었지. 모두가 평등했던 그 시절이 그리워.”라고 회상했다.

- <연합뉴스> (2014. 6. 10.)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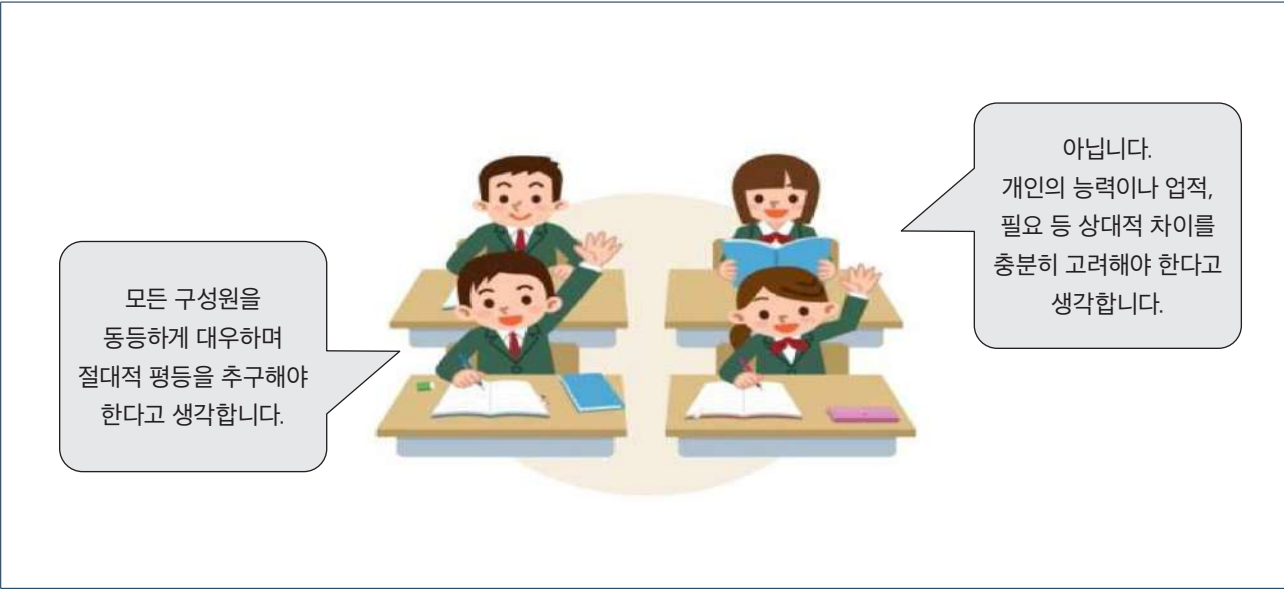
(바)

‘H시’는 최근 도시기반시설 건설과 복지 정책의 확대로 인해 재정이 크게 부족하게 되었다. 이에 H시는 보유자산 기준 상위 5% 시민을 대상으로 부유세를 신설하여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H시는 시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제를 중심으로 복지정책을 재편하여, 시민들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H시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물품이나 지원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H시의 선별된 생계급여 대상자는 3만 5천 명으로 전체 시민 100만 명 중 3.5%였다.

- <보건복지부 사이트> 재구성

[문제 1]

다음은 평등한 분배에 관한 토론 수업 모습이다. 학생들의 발표를 바탕으로 (가)~(바)를 두 유형으로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400자 내외, 210점)



[문제 2]

(가)에 나타난 청년세대들의 인식과 (바)에 기술된 H시의 정책을 <보기>의 노직의 관점에서 비교·평가하시오. (450자 내외, 210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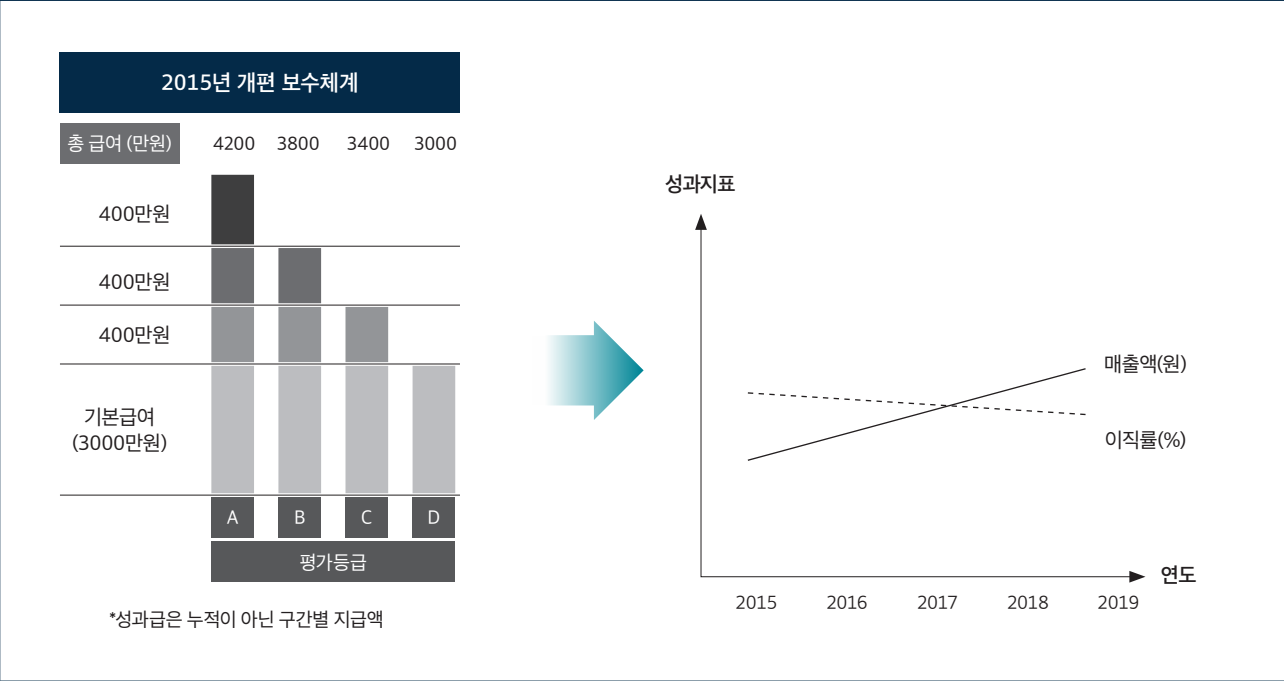
정의와 관련하여 분배기준 자체보다 공정한 분배를 위한 절차를 강조하는 입장이 있다. 이 입장에서는 절차나 과정이 공정하면 결과의 공정성도 보장된다고 본다. 이러한 절차적 정의를 논한 대표적 인물로 롤스와 노직이 있다. 롤스는 구성원들이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가지면서도 가장 불우한 처지에 놓인 사람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소득의 재분배 방식을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고,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복지 정책 등을 통해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노직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점에서는 롤스에 동의하지만, 차등의 원칙에는 반대한다. 노직은 재화의 취득과 이전의 절차나 과정이 정당하다면, 이를 통해 얻은 소유물에 관해서는 개인이 절대적 소유 권리를 가진다고 보았다. 그는 국가가 강압, 절도, 사기, 강제 계약의 발생을 막는 일 이상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되고, 재화의 분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보다 개인의 자유에 최대한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고등학교 교과서 『생활과 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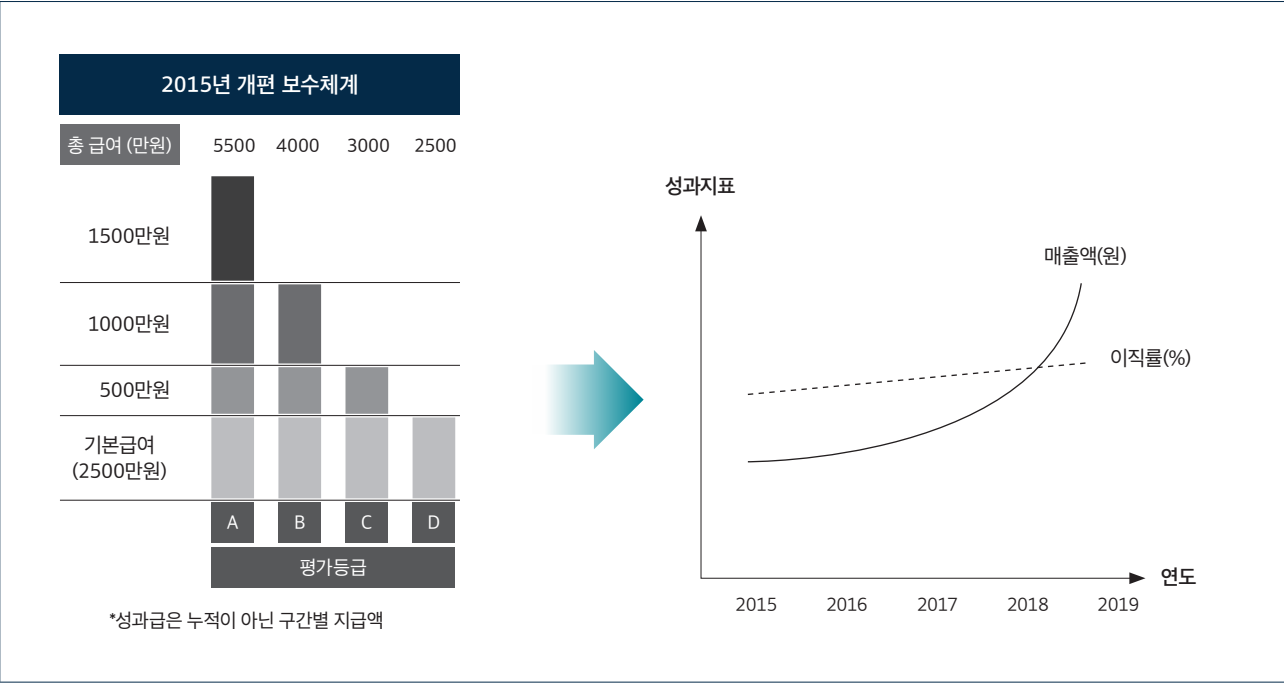
[문제 3]

<그림 1>과 <그림 2>는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급제를 도입한 A사와 B사의 보수체계 개편과 그에 따른 성과지표 현황이다. A사와 B사의 성과지표 추이를 해석하고, (다)를 바탕으로 두 회사의 성과지표 차이의 요인을 추론하시오. (500자 내외, 280점)

<그림 1> A사의 보수체계 개편과 그에 따른 성과지표 현황



<그림 2> B사의 보수체계 개편과 그에 따른 성과지표 현황



나. 출제의도

2023학년도 사회계 논술고사는 세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제 1]은 분류·요약, [문제 2]는 비교·평가, [문제 3]은 적용·추론의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사회계 논술고사는 자료의 해석을 통한 추론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문제 3]에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각 문항마다 개별적인 측정 의도가 반영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여러 제시문의 핵심어, 요지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분류, 연계하는 능력도 동시에 측정하고자 하였다.

2023학년도 논술 시험부터 시험 시간이 기존의 100분에서 90분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전체 답안 분량을 1,500자 내외에서 1,350자 내외로 줄였다. [문제 1]의 답안 분량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400자 내외이며, [문제 2]의 답안 분량은 기존의 500자 내외에서 450자 내외로, [문제 3]은 기존의 600자 내외에서 500자 내외로 조정하였다. 각 문항 당 배점은 기존과 동일하다. 각 문항별 출제 의도는 아래와 같다.

[문제 1]은 제시문 (가)부터 (바)까지의 여섯 개의 제시문을 읽은 후, 제시문이 말하는 바를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의 두 핵심어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여섯 개의 제시문을 각각 요약하게 함으로써 핵심어를 중심으로 한 요지 파악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문제 2]에서는 [문제1]에 제시된 두 개념인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의 개념을 확장해서 이해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위 제시문 중 개인의 능력이나 필요 등 상대적 차이를 충분히 고려한 상대적 평등 사례를 묘사한 (가) 지문과 (바) 지문을 선정했다. (가) 지문은 청년세대들의 능력 중심의 상대적 평등을 보여준 글이며 (바) 지문은 H시 사례를 통해 필요에 의한 상대적 평등 개념을 묘사하고 있다. 노직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 획득한 소유물에 대해서는 개인이 절대적 소유권을 가지며, 국가는 재화의 분배에 관여하지 말고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 풀이를 위해서는 (가)와 (바) 제시문의 관점과 키워드를 먼저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노직이 주장하는 평등 개념을 중심으로 두 제시문 (가), (바)를 각각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즉, 소유물에 대한 개인의 절대적 소유권과 재화 분배에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는 노직의 견해를 통해 (가)와 (바)의 제시문을 각각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제시문에 나타난 관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문제 3]에서는 적용 능력과 추론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두 회사(A사, B사)의 개편된 보수체계와 이에 따른 성과지표 그래프를 담은 그림을 제시하고, 제시문 (다)의 내용을 바탕으로 각 회사의 성과지표에 대한 해석과 차이점을 추론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그림 1>에서 A사는 구간별 성과급이 균등한 보수체계를 도입한 이후, 매출액은 완만하게 상승하고, 이직률은 감소하고 있다. 이는 (다)에서 N사가 초기에 도입한 성과급제와 성과지표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해석 및 추론할 수 있다. <그림 2>에서 B사는 구간별 성과급이 차등적인 보수체계를 도입한 이후, 매출액은 급성장하였으나, 이직률은 증가세를 보인다. 이는 (다)에서 N사가 확대 시행한 성과급제와 성과지표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해석 및 추론할 수 있다. 즉, (다)에 나타난 초기 성과급제와 확대된 성과급제를 각각 A사와 B사의 경우에 대입함으로써, 두 회사 간 성과지표의 차이를 추론할 수 있다.

다. 문항해설

문항	채점요소	배점
문제1	• 여섯 개의 제시문을 읽고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를 추출할 수 있어야 함 • 여섯 개의 제시문이 위 두 개의 키워드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 중 무엇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냐에 따라 (나), (라), (마)는 절대적 평등으로, 그리고 (가), (다), (바)는 상대적 평등으로 분류할 수 있어야 함 • 각 제시문의 요지를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 혹은 이와 유사한 의미의 대립쌍으로 요약할 수 있어야 함	210
문제2	• (가), (바)의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비교 정리해야 함 • [문제1]의 두 유형 분류에 따라 (가)의 능력 중심의 상대적 평등 개념과 (바)의 필요에 의한 상대적 평등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밝혀야 함 • 능력과 업적 그리고 필요에 따른 상대주의적 평등 개념을 이해하고 구분할 필요가 있음 - (가)는 능력주의를 옹호하는 청년세대들의 공정에 대한 인식을 통해 상대적 평등을 보여준다. - (바)는 H시가 생계급여제 정책을 통해 시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필요에 의한 상대적 평등을 보여준다. • [문제 2] 보기의 노직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함. 노직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점에서는 롤스에 동의하지만, 차등의 원칙에는 반대한다. 노직은 재화의 취득과 이전의 절차나 과정이 정당하다면, 이를 통해 얻은 소유물에 관해서는 개인이 절대적 소유 권리를 가진다고 보았음 • 소유물에 대한 개인의 절대적 소유권과 재화 분배에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는 노직의 견해를 통해 (가)와 (바)의 제시문을 각각 평가하도록 함	210
문제3	• A사와 B사의 성과지표에 나타난 매출액과 이직률의 추이를 해석하고, 그림에 묘사된 보수체계의 특징과 (다)를 바탕으로 두 회사간 성과지표 추이의 차이를 추론할 수 있어야 함 [해석] • <그림 1>에서 A사는 구간별 성과급이 균등한 보수체계를 도입한 이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매출액은 완만하게 상승하고, 이직률은 감소세를 보인다. • <그림 2>에서 B사는 구간별 성과급이 차등적인 보수체계를 도입한 이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매출액은 급성장하였으나, 이직률은 증가세를 보인다. [추론] • A사의 경우 성과급제를 도입하였지만, 구간별 성과지급액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업적에 따른 보수의 차이는 있지만 비교적 성과급제를 점진적으로 조직내 안착할 수 있었고, 이는 매출액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아울러, 업적에 따른 분배라는 상대적 평등성으로 인해 직무만족도 또한 증가하여 이직률의 감소로 이어졌음을 추론할 수 있다. • B사의 경우 성과급제를 도입하였지만, 구간별 성과지급액을 차등적으로 지급함으로써, 고성과자와 저성과자간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급격한 변화를 조직에 가져왔다. 또한, S, A급과 같은 고평점자의 총급여는 A사에 비해 높지만, B, C급과 같은 저평점자들의 총급여는 A사에 비해 낮다. B사의 경우, 성과급 강화로 내부 경쟁이 심해져 매출액은 크게 증가하였지만,직원들 간 위화감이 조성되어 근무환경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이직률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80

라. 채점기준

[문제 1]

등급		채점 기준
A	A+	• 다음과 같은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여섯 개의 제시문이 위 두 개의 키워드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 중 무엇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냐에 따라 (나), (라), (마)는 절대적 평등으로, 그리고 (가), (다), (바)는 상대적 평등으로 분류하여 기술 각 제시문의 요약에 아래 핵심어/유사어를 포함하여 기술한 경우 (가) 능력, 실력, 역량, 재능 (나) 삼균주의, 균등주의 (다) 업적, 공적, 성과 (라) 천조전무제도, 대동이념, 대동사상 (마) 동지정신, 모두가 평등했던 시절 (바) 생계급여, 복지정책, 기초생활보장
	AO	• 내용 측면에서 위의 A+ 조건을 모두 충족하나 핵심어 대신 근접어를 사용한 경우 또는, • 문장구성, 연결 등이 다소 매끄럽지 않은 경우

B	B+	- 제시문들을 상반되는 두 유형으로 분류하고 요약했지만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 개념에 대한 기술이 미흡한 경우, 또는 - 각 제시문의 요약문이 가독성이 낮은 경우
	B0	제시문들을 상반되는 두 유형으로 분류하고 요약했으나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의 구분이 적절하지 못하고 제시문들의 입장 분류 및 요약 또한 부실한 경우 (예: 제시문들 간의 분류가 부분적으로 잘못된 경우)
C		제시문 중 일부만을 요약하거나 제시문들을 상반되는 두 유형으로 분류하지 못한 경우
D		일부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였으나 답과 거리가 멀고 글자 수를 현저히 채우지 못한 경우
F		문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관련 없는 내용을 서술한 경우

[문제 2]

등급		채점 기준
A	A+	- 답안의 내용 면에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바) 비교 시 각각의 관점을 비교하여 명시함 - 능력과 업적 그리고 필요에 따른 상대주의적 평등 개념을 이해하고 구분할 필요가 있음 (가)는 능력주의를 옹호하는 청년세대들의 공정에 대한 인식을 통해 상대적 평등을 보여준다. (바)는 H시가 생계급여제 정책을 통해 시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필요에 의한 상대적 평등을 보여준다. (가), (바) 비교 시 차이점 명시 [문제 2] 보기의 노직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함 - 소유물에 대한 개인의 절대적 소유권과 재화 분배에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는 노직의 견해 명시해야 함 - 노직의 관점에서 평가 (가)에서 K씨는 할당제의 최소화와 능력에 따른 인재 선발을 주장, L씨는 정당하게 축적한 부의 재산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과도한 세금 부과에 반대 - K씨와 L씨의 공통적 견해: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중시, 취득한 소유물에 관한 개인의 절대적 소유권을 주장 (바)에서 H시의 복지재원--> 개인의 소유권침해 - 생계급여제는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할 재화의 분배에 H시가 과도하게 관여-->비판/ 평가 - 답안의 내용뿐만 아니라 어휘, 표현, 문장, 단락 구성 등에 있어 오류가 (거의) 없는 경우 - 주어진 자수(500자)±10%의 오차 이내로 작성해야 함
		- A+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어휘 사용이 다소 부정확함 - 관용구, 표현 등이 일부 부자연스러움 - 문장 간 연결이 다소 매끄럽지 못함 - 단락 구분에 작은 오류가 있음 주어진 자수 ± 10%의 오차를 다소 벗어나 작성됨
B	B+	- 내용면에서 A0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바)의 비교시 두가지 중 공통점이 누락된 경우 (가), (바)의 비교시 두가지 중 차이점 누락된 경우 (가), (바)의 평가시 두가지 중 하나가 누락된 경우 - 어휘의 사용의 실수가 가끔 나타남 - 문장의 연결이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가끔 나타남
	B0	- 내용 면에서 B+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B+의 감점 요인이 2항목 이상 포함됨 (가), (바)의 비교 시 공통점만 기술한 경우 (가), (바)의 비교 시 차이점만 기술한 경우 (가), (바)의 평가가 누락된 경우
C		- 내용 면에서 다음 항목 중 두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바)의 비교 시 공통점을 제대로 기술하지 못함 (가), (바)의 비교 시 차이점을 제대로 기술하지 못함 - 노직의 관점으로 (가), (바)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함
D		- 일부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였으나 비교 혹은 평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 답안 작성을 중간에서 멈춘 경우 - 글자 수가 250자 미만인 경우
F		- 글자 수와 상관없이 문제와 아무런 관련 없는 내용을 서술한 경우 - 답안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문제 3]

등급		채점 기준
A	A+	- 내용 측면에서 아래 네 가지 항목을 모두, 명확하게 전달한 경우 <그림 1>에서 A사는 구간별 성과급이 균등한 보수체계를 도입한 이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매출액은 완만하게 상승하고, 이직률은 감소세를 보인다. <그림 2>에서 B사는 구간별 성과급이 차등적인 보수체계를 도입한 이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매출액은 급성장하였으나, 이직률은 증가세를 보인다. - 성과급의 도입으로 인해 A사 직원들의 직무만족도가 전체적으로 상승하였고, 이것이 매출액 상승 및 이직률 감소라는 긍정적인 성과지표로 연결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 A사에 비해 기본급이 적고, 고평점자와 저평점자간의 격차가 더 큰 성과급 체계를 도입한 B사의 경우, 고성과자에 대한 보상은 증하였으나, 근무환경이 불안정해졌다. 따라서 성과지표 중, A사에 비해 매출액은 급격하게 성장하는 추이를 보여 주지만, 이직률 또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답안의 내용뿐만 아니라 표현, 문법, 단락 구성 등에 있어 오류가 (거의) 없는 경우 - 답안의 가독성(readability)이 충분한 경우
	A0	- 내용 측면에서 A+ 기준을 충족하나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어휘 사용이 다소 부정확함 - 관용구, 표현 등이 일부 부자연스러움 - 문장 간 연결이 다소 매끄럽지 못함 - 단락 구분에 작은 오류가 있음
B	B+	내용 측면에서 A0 기준을 대체로 충족하나 네 가지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진 경우
	B0	- 내용 측면에서 B+ 기준에 해당하고,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 하는 경우 - 어휘 사용이 전반적으로 부정확함 - 관용구, 표현 등이 전반적으로 부자연스러움 - 문장 간 연결이 전반적으로 매끄럽지 못함 - 단락 구분에 오류가 많음
C		- 네 가지 핵심 명제 중 두 개 이상 빠진 경우 - 어휘, 관용구, 표현, 문장 간 연결, 가독성 등에서 큰 문제가 없더라도 핵심 명제가 두 개 이상 누락되면 C등급 이하로 채점
D		- 네 가지 핵심 명제 중 세 개가 빠졌거나 불분명하게 전달된 경우 - 글자 수(공백 포함)가 250자 이하인 경우
F		- 주어진 자료의 핵심 내용을 모두 파악하지 못한 경우 - 문제와 관계없는 내용을 기술한 경우 - 글자 수(공백 포함)가 150자 이하인 경우

[문제 1]

제시문들은 절대적 평등을 보여주는 (나), (라), (마)와 상대적 평등을 보여주는 (가), (다), (바)로 분류된다. (나)는 삼균주의를 통해 개인, 국가, 민족간의 평등을 이룬다는 절대적 평등을 보여준다. (라)는 태평천국의 천조전무제도와 대동이념을 통해 절대적 평등을 실현하려 했던 노력을 보여주고, (마)는 절대적 평등을 추구했던 소련연방 시절에 대한 고려인 노년층의 향수를 보여준다. 이와 달리 (가)는 능력주의를 옹호하는 청년세대들의 공정에 대한 인식을 통해 상대적 평등을 보여준다. (다)는 업적을 기준으로 급여를 결정하는 N사의 성과급제를 통해 상대적 평등을 보여주며, (바)는 H시가 생계급여제 정책을 통해 시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필요에 의한 상대적 평등을 보여준다. [392자]

[문제 2]

노직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 획득한 소유물에 대해서는 개인이 절대적 소유권을 가지며, 국가는 재화의 분배에 관여하지 말고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에서 K씨는 할당제의 부작용을 말하며 능력에 따른 인재 선발을 주장했고, L씨는 정당하게 축적한 부의 재산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과도한 세금 부과에 반대했다. K씨와 L씨의 견해는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중시하며 이를 통해 취득한 소유물에 관한 개인의 절대적 소유권을 주장하는 노직의 견해에 부합한다고 평가된다. 반면 노직의 관점에 따르면 (바)에서 H시가 복지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시행한 부유세는 정당하게 축적한 소유물에 관한 개인의 절대적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또 시민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과 비용을 지급하는 생계급여제는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할 재화의 분배에 H시가 과도하게 관여한다고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451자)

[문제 3]

A사의 성과지표 중 매출액은 2015년 보수체계 개편 후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이직률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A사의 성과급제는 구간별 성과급지급액은 균일하다. 이는 N사의 초기 성과급 도입제도와 유사한 형태로서, 성과급의 도입으로 인해 A사 직원들의 직무만족도가 전체적으로 상승하였고, 이것이 매출액 상승 및 이직률 감소라는 긍정적인 성과지표로 연결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B사의 성과지표 중 매출액은 2015년 보수체계 개편 후 급격하게 상승하는 반면, 이직률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B사의 경우, A사와 비교해 기본급이 적고, 성과급 구간별 지급액이 차등적이다. 그 결과 S, A급과 같은 고평점자의 총급여는 A사에 비해 높지만, B, C급과 같은 저평점자들의 총급여는 A사에 비해 낮다. B사의 경우, 성과급 강화로 내부 경쟁이 심해져 매출액은 급격하게 증가하였지만, 직원들 간 위화감이 조성되어 근무환경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이직률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97자]

가. 문제지



한국외국어대학교 2023학년도 논술전형
논술고사 문제지 (사회계)

2022. 11. 26.(토) [오후] 15:00 ~ 16:30

고사실번호		지원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	--	--------	--	------	--	----	--

[유의사항]

1. 시험 시간은 90분입니다.
2. 답안 작성은 반드시 검은색 볼펜, 연필, 또는 샤프를 사용해야 합니다.
3. 반드시 문항별 답안지 작성영역에 답안을 기재해야 합니다.
4. (띄어쓰기 포함) 답안의 정해진 작성 분량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답안 영역에 작성한 내용만 인정됩니다.
5. 답안에 자신을 드러내는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6. 답안에 제목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갈등은 집단 구성원 사이 혹은 둘 이상의 집단 사이에서 어떤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 주장, 이해, 욕구의 충돌이 일어난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갈등은 결과적 측면에 따라 ‘생산적 갈등’과 ‘소모적 갈등’으로 구분한다. 생산적 갈등은 갈등 양상이 집단의 동기, 창의성, 결속력, 문제해결, 생산성 등을 촉진했을 때의 갈등을 뜻한다. 반면, 소모적 갈등은 갈등 양상이 당사자 간의 반목 등을 유발해 집단의 목표 달성 등을 방해하고 여러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을 때의 갈등을 말한다.

- 김국현 외,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재구성

(나)



윌버와 오빌 라이트 형제는 몇 달 동안 자신들이 만든 글라이더를 가지고 킬데빌힐스를 오갔다. 풍동(wind tunnel) 실험에서 얻은 데이터를 활용한 덕분에, 그들은 날개를 어떻게 설계해야 가장 잘 날아오르면서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시험 비행에서 급강하 문제가 계속 나타났다. 형제 중 한 명이 거의 죽을 뻔하기도 했다. 라이트 형제는 이 문제를 의논하다 곧 논쟁을 시작했다. 하지만 형제는 논쟁 자체를 즐겼다. 윌버는 종종 “오빌은 훌륭한 싸움꾼이죠.”라고 애정을 담아 말했다.

수석 정비공 테일러는 형제가 일하던 가게 위층이 “논쟁이 끊이지 않아 겁먹게 되느”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급강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논쟁하던 날 밤, 오빌은 잠들지 못했다. 형과 논쟁을 벌였기 때문이 아니라 논쟁에서 찾아낸 가능성들을 생각하느라 머리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윌버의 주장을 다시 검토해보고, 자신의 주장과 합쳐 정리해보았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오빌이 해결안을 내놓았다. 조절 가능한 방향타였다. 윌버가 내놓은 몇 가지 제안을 더해, 형제는 처음으로 완벽하게 조종 가능한 글라이더를 만들었다.

- 이언 레슬리, 『다른 의견』 재구성

(다)

조선 시대 사림(士林)은 서원과 향약을 기반으로 향촌 사회에서 꾸준히 세력을 확대하였다. 이들은 정치적·학문적 입장을 같이 하는 ‘봉당’이라는 정치 집단을 구성했고, 봉당 내부의 토론을 통해 ‘공론’을 형성하여 이를 정치에 반영하는 왕도 정치를 실현하려 하였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궁중 예법을 둘러싼 견해 차이, 국왕의 주도로 집권 봉당이 급격히 교체되는 한국이 나타나면서 정치 권력을 둘러싼 봉당 간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었다. 왕이 한국을 주도함에 따라 왕과 직결된 외척이나 종친의 정치적 비중이 커졌고, 정치 권력은 점차 고위 관료들에게 집중되었다. 또한 특정 봉당이 정권을 독점하는 일당 전제화가 나타나면서 공론은 개인이나 당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이용되었으며, 상대 세력의 정당성과 견해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강화되었다. 결국 봉당의 공론 형성을 통해 선비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치에 반영하던 정치 기반이 무너지게 되었고, 외척 세력이 권력을 잡는 세도정치가 나타나면서 국정정의 부패가 가중되었다.

- 송호정 외, 『고등학교 한국사』 재구성

(라)

[앞부분 줄거리] ‘나’의 가족은 아빠의 직장 때문에 독일에서 살게 된다. 이웃에는 베트남인 호 아저씨, 응웬 아줌마 그리고 아들 투이가 산다. ‘나’의 가족은 호 아저씨 가족과 서로 의지하며 지낸다. 학교에서 베트남 전쟁에 관한 수업이 있던 날, 호 아저씨네 집에서 두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한다.

“한국은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 없어요.” 나는 그 말을 하고 동의를 구하기 위해 엄마 아빠를 쳐다봤다. 아빠는 아무 얘기도 못 들었다는 듯이 내 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았고, 엄마는 조용히 하라는 투의 눈빛을 보냈다. [중략] 나는 마지막 용기를 쥐어짜서 독일어로 말했다. “한국에서 그렇게 배웠는데. 우리 아무에게도 잘못된 게 없다고. 우리 당하기만 했다고.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한국 군인들이 죽었다고 했어.” 투이가 말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식탁의 분위기를 얼려버리기에는 충분했다. “그들이 엄마 가족 모두를 다 죽였다고 했어. 할머니도, 아기였던 이모까지도 그냥 다 죽였다고 했어. 엄마 고향에는 한국군 증오비가 있대.” 어떻게 네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힐난하는 말투였지만 나는 그 애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말했다. “응웬 씨가 겪었던 일,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래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엄마는 호 아저씨와 응웬 아줌마에게 고개 숙였다.

“저는 모든 걸 제 눈으로 다 봤답니다. 투이 나이 때였죠.” 그렇게 말하고 호 아저씨는 붉어진 눈시울로 애써 웃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 아저씨는 거기까지 말하고 힘껏 웃어 보였다. [중략]

아빠는 식탁 의자에 걸친 카디건에 팔을 넣었다. “저녁 잘 먹었습니다.” 아빠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저희 형도 그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형 나이 스물이었죠. 용병일 뿐이었어요.” 아빠는 누구의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바닥을 보면서 말했다.

“그들은 아기와 노인들을 죽였어요.” 응웬 아줌마가 말했다.

“누가 베트남인지 누가 민간인인지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아빠는 여전히 응웬 아줌마의 눈을 피하며 말했다.

“태어난 지 고작 일주일 된 아기도 베트남으로 보였을까요. 거동도 못 하는 노인도 베트남으로 보였을까요.”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이요? 그건 그저 구역질 나는 학살일 뿐이었어요.” 응웬 아줌마가 말했다. 어떤 감정도 담기지 않은 사무적인 말투였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길 바라시는 겁니까? 저도 형을 잃었다구요. 이미 끝난 일 아닙니까? 잘못했다고 빌고 또 빌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응웬 아줌마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서재로 걸어 들어갔다. 조심히 닫히던 문소리. 나는 겁에 질렸지만 차마 서재로 따라 들어가지는 못했다.

- 최은영, 『썬짜오, 썬짜오』 중에서

(마)

A시는 자체 쓰레기소각장이 필요해짐에 따라 B시와의 경계 지역에 소각장을 건설할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A시는 B시와 행정협의를 하지 않은 채 사업추진을 강행하여 B시와 갈등을 빚게 되었다. B시의 시민과 시의회 의원들은 A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쓰레기소각장 건설계획에 격렬히 반대하면서 A시 측에 소각장 건설부지 선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였다. A시는 건설부지가 적법하게 선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소각장 건설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B시의 항의가 계속되면서

지자체 간 갈등으로 비화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B시가 타 도시에 위탁해서 처리하던 생활 하수의 일부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면서 B시는 자체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결국 쓰레기소각장을 필요로 하는 A시와 하수처리장을 필요로 하는 B시가 환경 기초시설의 빅딜을 논의하게 되었다. 양측은 A시와 B시의 시민, 지역 의원, 전문가를 포함하는 업무 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조정 방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주민공청회를 수차례 개최하여 소각장 건설, 하수처리장 이용에 관한 정보들을 관련 당사자 모두와 공유하면서 갈등을 조정해 나갔다. 마침내 A시가 B시의 하수를 처리해 주고, B시가 A시의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동의하는 방안에 합의하였다.

- 윤영채, 『입지 갈등… 사례 연구』 재구성

(바)

K시 교도소 재건축 및 이전 사안은 약 15년 동안 지속적인 갈등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 갈등은 재건축을 추진한 부처가 K시와 K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일방적 방식을 고수하면서 심화되었다. 해당 부처는 갈등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면서도 K시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지 않은 채, K시와 시의회, 부처만 포함함으로써 K시 시민들의 불만을 초래하였다. 또한 갈등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이를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예측하는 갈등영향분석도 진행하지 않았고, 갈등 요인들과 관련된 정보의 공유를 제한하면서 주민공청회와 설명회를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형식적 수단으로만 사용하였다. 이렇게 법적 정당성만을 갈등 해결의 주요 가치로 인식하는 정책 추진 방식은 교정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한 K시 시민의 신뢰도 떨어뜨렸다. 결국 논의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

- 김성근, 『갈등해결 이후의 사회적 결과에 관한 연구』 재구성

(사)

일본의 N자동차 회사는 1979년 미국 캘리포니아에 디자인센터(NDI)를 설립했다. 해외 시장을 겨냥한 자동차 디자인 개발을 위해 본사의 간섭 없이 창의적인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구축하기 위해서였다. NDI의 초대 대표 허쉬버그는 디자인 스튜디오의 진용을 꾸리면서 독특한 고용 원칙을 도입했다. 업무 스타일, 가치관 등 모든 면에서 전혀 다른 두 디자이너를 영입해 동일한 프로젝트에서 함께 일하도록 한 것이다. 이른바 ‘상반된 2인조’ 고용 원칙이다. 대표적인 예로 NDI에서 한 팀으로 일하게 된 톰 셴플과 앨런 플라워스를 들 수 있다. 셴플은 ‘디자인이란 예술적 직관을 통해 백지상태에서 전혀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봤다. 자동차의 공학적 측면은 그에게 주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반면 플라워스는 ‘형태보다 기능이 앞선다’고 믿었다. 자동차 부품과 재료, 각각의 기능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고, 그에 따라 디자인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었다.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은 많은 사안에서 의견이 충돌했다. 사람들은 디자이너들끼리 갑론을박 싸움만 하다 프로젝트가 산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하였지만, 허쉬버그는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면서 두 사람을 오랫동안 함께 일하도록 했다. 이러한 결정은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 우려와는 달리, 이들은 시장의 호평을 받는 혁신적인 디자인을 잇달아 탄생시켰다.

- 이방실, 『DBR』 재구성

[문제 1]

(가)에 나타난 두 가지 갈등 유형을 토대로 (나)~(마)를 분류하고, 갈등의 주제·내용·결과를 중심으로 각 제시문을 요약하시오. (400자 내외, 210점)

[문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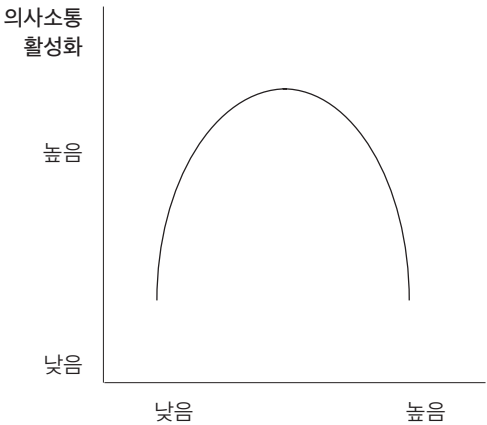
아래 <보기>를 바탕으로 (마)와 (바)를 비교·평가하시오. (450자 내외, 210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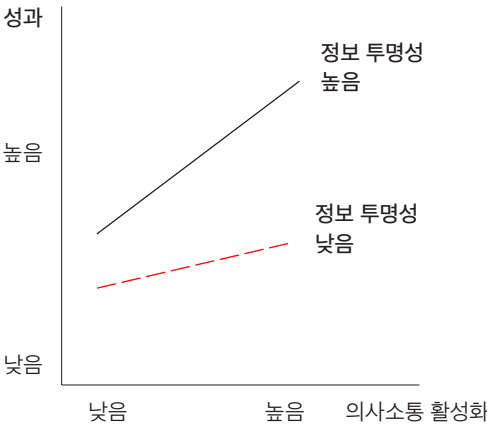
사회학자 ○○에 따르면 기피 시설 설치 등의 공공정책으로 인한 정부 부처, 지자체, 지역주민의 갈등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은 체계적인 갈등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첫째,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실질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둘째, 주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거나 이해 상충으로 인한 심각한 갈등이 우려되는 경우 정책의 영향을 분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셋째,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들이 원활하게 의견을 나누고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협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문제 3]

어떤 조직의 관리자가 조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취해야 할 갈등관리 방법을, (사)의 사례를 참고하고 <그림 1>과 <그림 2>를 적용하여 추론하시오. (500자 내외, 280점)



<그림 1> 갈등과 의사소통 활성화의 관계



<그림 2> 의사소통 활성화, 정보 투명성, 성과의 관계

나. 출제지도

사회계(오후) 문항 세트는 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 1]은 분류·요약, [문제 2]는 비교·평가, [문제 3]은 적용·추론의 능력을 평가한다. 세 문항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도록 (가)~(사)를 제시한 후, [문제 2]에만 사용되는 <보기> 지문과 [문제 3]에만 적용되는 <그림 1>, <그림 2>를 추가로 배치하였다. 문항마다 독립적인 능력을 평가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지만, 특정 문항에서는 두 개 이상의 지문을 기반으로 핵심어, 요지, 그래프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확인하도록 했다. 문항별 출제 의도는 다음과 같다.

[문제 1]에서는 갈등의 ‘결과적 측면’에 따라 제시문 (나)~(마)에 나타난 갈등 유형을 ‘생산적 갈등’과 ‘소모적 갈등’으로 구분한 후, 각 제시문을 요약하도록 했다. 이 문제를 통해 (나)와 (마)를 생산적 갈등으로 분류하고, (다)와 (라)를 소모적 갈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또한 갈등의 주제·내용·결과라는 측면에서 네 개의 제시문을 요약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고자 했다.

[문제 2]에서는 별도로 제시된 <보기>를 바탕으로 (마)와 (바)를 비교·평가하도록 했다. <보기>에서 파악해야 할 핵심 내용은 갈등관리 방안으로, (1) 관련 정보의 실질적 공유, (2) 정책 영향을 분석하는 절차 도입, (3) 여러 당사자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협의체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 세 가지 방안을 토대로 (마)와 (바)를 비교·평가하면, (마)는 세 가지 방안이 모두 적용된 긍정적 사례인 반면, (바)는 세 가지 기준이 모두 부재한, 부정적 사례에 해당한다. 이러한 해석 틀을 바탕으로 아래 세 가지 세부 사항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제시문	결과	정보 공유	영향 분석	협의체 구성
(마)	생산적 갈등	주민공청회를 통한 관련 당사자 모두와의 정보 공유	조정 방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분석 시행	시민, 의원,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업무 협의회 구성
(바)	소모적 갈등	주민공청회·설명회 등을 형식적으로만 개최	갈등 상황을 진단하고 예측하는 ‘갈등영향분석’을 진행하지 않음	의사소통 촉진을 위한 위원회에 시민 참여를 독려하지 않음

[문제 3]에서는 생산적 갈등의 사례를 보여주는 제시문 (사)를 바탕으로 그래프 두 개(<그림 1>, <그림 2>)를 연계하여 해석하는 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결 고리를 파악해야만 한다.

첫째, (사)의 사례가 두 그래프의 해석과 무관하지 않음을 파악한다.
둘째, <그림 1>, <그림 2>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1) 갈등의 정도, (2) 갈등관리 방안(의사소통 활성화 및 정보 투명성), (3) 조직 성과의 관계를 도출한다.

이러한 논리구조를 파악한 후,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어야 한다.

조직 관리자는 조직 성과를 높이기 위해 일정 정도의 갈등을 유지하도록 하여 의사소통 활성화를 높이고, 높은 수준의 정보 투명성을 유지해야 한다.

다. 문항해설

문항	채점 요소	배점
문제1	- (가)를 읽고 ‘생산적 갈등’과 ‘소모적 갈등’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를 추출할 수 있어야 함 - (나)~(마)를 위 두 개의 키워드 ‘생산적 갈등’과 ‘소모적 갈등’ 중 무엇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냐에 따라 (나)와 (마)는 생산적 갈등으로, (다)와 (라)는 소모적 갈등으로 분류할 수 있어야 함 - 각 제시문의 요지를 생산적 갈등과 소모적 갈등, 혹은 이와 유사한 의미의 대립 쌍으로 요약할 수 있어야 함	210
문제2	- <보기>에 드러난 갈등관리 방안을 바탕으로 (마)와 (바)에서 드러난 갈등관리 사례를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함 (1) (마)의 A시와 B시는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갈등 영향을 분석했으며, 이해당사자 간 협의체를 마련한 반면, (바)의 부처는 관련 정보의 공유를 제한하고, 갈등 영향을 분석하지 않았으며, 이해당사자 간 협의체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음 (2) <보기>를 바탕으로 (마)의 A시, B시는 갈등을 제대로 관리한 반면, (바)의 부처는 갈등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210
문제3	- 조직의 관리자가 조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갈등관리 방법을 주어진 세 자료((사)의 사례, <그림 1>, <그림 2>)에서 도출할 수 있어야 함 (1) (사)의 사례: 허쉬버그가 갈등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고용 원칙을 도입하여 혁신적인 디자인 탄생을 이끌어냄 (2) <그림 1>: 적절한 갈등이 존재할 때 의사소통 활성화가 높아짐 (3) <그림 1>: 의사소통 활성화가 높아질수록 성과가 높아지며, 정보 투명성이 높은 경우가 정보 투명성이 낮은 경우보다 언제나 성과가 높음	280

라. 채점기준

[문제 1]

등급		채점 기준
A	A+	• 다음과 같은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 제시문 (가)의 ‘생산적 갈등’과 ‘소모적 갈등’을 언급 - (나)~(마)의 제시문을 ‘생산적 갈등’과 ‘소모적 갈등’이라는 두 유형으로 나누되, 제시문 (나)와 (마)를 생산적 갈등으로, (다)와 (라)를 소모적 갈등으로 분류하여 기술 - 각 제시문의 요약에 갈등 주제, 갈등 내용, 갈등 결과와 연결하여 (나) 라이트 형제, 급강하 문제, 조종 가능한 글라이더 (다) 봉당, 정치 권력, 정치 기반 붕괴 (라) ‘나’의 아버지와 투이의 어머니, 베트남전, 대화 중단 (마) A시와 B시, 쓰레기소각장 건설, 합의 등의 핵심어/유사어를 포함하여 기술한 경우
	AO	• 내용 측면에서 위의 A+ 조건을 모두 충족하나 핵심어 대신 근접어를 사용한 경우 또는, • 문장구성, 연결 등이 다소 매끄럽지 않은 경우
B	B+	• 제시문들을 상반되는 두 유형으로 분류하고 요약했지만 각 제시문에서 나타나는 갈등 주제, 갈등 내용, 갈등 결과에 대한 기술이 일부 미흡한 경우, 또는 • 각 제시문의 요약문이 가독성이 낮은 경우
	BO	• 제시문들을 상반되는 두 유형으로 분류하고 요약했으나 ‘생산적 갈등’과 ‘소모적 갈등’의 구분이 적절하지 못하고 제시문들의 입장 분류 및 요약 또한 부실한 경우 (예: 제시문들 간의 분류가 부분적으로 잘못된 경우)
C		• 제시문 중 일부만을 요약하거나 제시문들을 상반되는 두 유형으로 분류하지 못한 경우
D		• 일부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였으나 답과 거리가 멀고 글자 수를 현저히 채우지 못한 경우
F		• 문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관련 없는 내용을 서술한 경우

[문제 2]

등급		채점 기준
A	A+	• 내용 측면에서 아래 다섯 가지를 모두, 명확하게 전달한 경우 - <보기>는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갈등 관리 방안을 제시 - (마)는 정보의 실질적 공유, 갈등의 영향 분석, 협의체 마련을 했다는 점 - (바)는 정보의 실질적 공유, 갈등의 영향 분석, 협의체 마련을 하지 않았거나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 - <보기>를 바탕으로 (마)는 제대로 갈등을 관리한 반면, (바)는 갈등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점 • 답안의 내용뿐만 아니라 표현, 문법, 단락 구성 등에 있어 오류가 (거의) 없는 경우 • 답안의 가독성(readability)이 매우 높은 경우

	AO	• 내용 측면에서 A+ 기준을 충족하나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어휘 사용이 다소 부정확함 - 관용구, 표현 등이 일부 부자연스러움 - 문장 간 연결이 다소 매끄럽지 못함 - 단락 구분에 작은 오류가 있음
B	B+	• 내용 측면에서 AO 기준을 충족하나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보기>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경우 - (마)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경우 - (바)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경우 - (마)와 (바)가 제대로 비교되지 않은 경우 - <보기>를 바탕으로 (마)를 (바)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전달되지 않은 경우
	BO	• 내용 측면에서 B+ 기준에 해당하고,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어휘 사용이 전반적으로 부정확함 - 관용구, 표현 등이 전반적으로 부자연스러움 - 문장 간 연결이 전반적으로 매끄럽지 못함 - 단락 구분에 오류가 많음
C		• 내용 측면에서 다음 항목 중 두 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보기>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경우 - (마)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경우 - (바)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경우 - (마)와 (바)가 제대로 비교되지 않은 경우 - <보기>를 바탕으로 (마)를 (바)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전달되지 않은 경우
D		• C의 항목에서 세 항목 이상 잘못 전달된 경우 • 글자 수(공백 포함)가 200자 이하인 경우
F		• 글자 수와 상관없이 문제와 관계없는 내용을 기술한 경우 • 답안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문제 3]

등급		채점 기준
A	A+	• 내용 측면에서 아래 네 가지를 모두, 명확하게 전달한 경우 - (사)의 사례는 조직 내 갈등 유발이 성과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줌 - <그림 1>은 적절한 갈등이 의사소통 활성화를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줌 - <그림 2>는 의사소통 활성화가 높아질수록 성과가 높아지며, 정보 투명성이 높은 경우가 정보 투명성이 낮은 경우보다 언제나 성과가 높음을 보여줌 - 조직 관리자는 적절한 갈등을 통해 의사소통 활성화를 높이는 한편, 정보 투명성을 높여야 함 • 답안의 내용뿐만 아니라 표현, 문법, 단락 구성 등에 있어 오류가 (거의) 없는 경우 • 답안의 가독성(readability)이 매우 높은 경우
	AO	• 내용 측면에서 A+ 기준을 충족하나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어휘 사용이 다소 부정확함 - 관용구, 표현 등이 일부 부자연스러움 - 문장 간 연결이 다소 매끄럽지 못함 - 단락 구분에 작은 오류가 있음
B	B+	• 내용 측면에서 A+ 기준을 대체로 충족하나 메시지 전달이 간단명료하지 않은 경우
	BO	• 내용 측면에서 B+ 기준에 해당하고,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어휘 사용이 전반적으로 부정확함 - 관용구, 표현 등이 전반적으로 부자연스러움 - 문장 간 연결이 전반적으로 매끄럽지 못함 - 단락 구분에 오류가 많음
C		• 네 가지 핵심 내용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진 경우 - 어휘, 관용구, 표현, 문장 간 연결, 가독성 등에서 큰 문제가 없더라도 핵심 명제가 하나라도 누락되면 C등급 이하로 채점
D		• 네 가지 핵심 내용 중 두 개가 빠졌거나 불분명하게 전달된 경우 • 글자 수(공백 포함)가 250자 이하인 경우
F		• 주어진 세 자료의 핵심 내용을 모두 파악하지 못한 경우 • 문제와 관계없는 내용을 기술한 경우 • 글자 수(공백 포함)가 150자 이하인 경우

[문제 1]

(가)에 따르면 갈등은 결과적 측면에 따라 ‘생산적 갈등’과 ‘소모적 갈등’으로 나뉜다. 이를 토대로 (나)와 (마)는 생산적 갈등으로, (다)와 (라)는 소모적 갈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나)에서 월버와 오빌 라이트 형제는 글라이더의 급강하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이지만, 결국 완벽하게 조종 가능한 글라이더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한다. (마)의 A시와 B시는 쓰레기소각장 건설 문제로 갈등하지만 A시가 B시의 하수를 처리해주고 B시가 A시의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허용해 주는 방안에 합의한다. (다)의 봉당은 정치 권력을 둘러 싸고 갈등하다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정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게 된다. (라)에서 ‘나’의 아버지와 응웬 아줌마는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의 행위에 대한 인식 차이로 갈등하다가 대화를 중단하게 된다. (403자)

[문제 2]

<보기>는 공공기관의 체계적 갈등관리 방안으로, 실질적 정보의 공유, 갈등 영향에 대한 분석, 이해당사자 간 협의체 마련을 제시한다. (마)는 환경 기초시설 건설을 둘러싼 A시와 B시 간의 갈등을, (바)는 K시의 교도소 재건축 관련 갈등을 소개하고 있다. (마)에서 A시와 B시는 주민공청회를 통해 정보를 실질적으로 공유하였고, 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두 시의 시민, 지역 위원, 전문가를 포함하는 업무 협의회를 구성하여 환경 빅딜을 이루었다. 반면 (바)에서 교도소 재건축을 추진한 부처는 갈등과 관련된 정보의 공유를 제한하였고, 갈등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갈등영향분석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K시 시민들의 위원회 참여를 독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보기>에 제시된 기준으로 볼 때, (마)의 A시와 B시는 갈등을 제대로 관리한 반면, (바)의 부처는 갈등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했다. (449자)

[문제 3]

(사)에서 허쉬버그는 샘플과 플라워스처럼 스타일과 가치관 등 모든 면에서 전혀 다른 두 디자이너가 한 팀에서 함께 일하도록 한 이후, 적절히 지원함으로써 일정 정도의 갈등을 유지하여 생산적 결과에 이르도록 하였다. 갈등을 이렇게 잘 관리하면 생산적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그림 1>과 <그림 2>에서 추론할 수 있다. 우선 <그림 1>에 따르면 갈등이 지나치게 높거나 지나치게 낮을 때 의사소통 활성화가 낮아지고, 갈등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될 때 의사소통 활성화가 높아진다. (사)의 허쉬버그는 일정 정도의 갈등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의사소통 활성화를 높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는 의사소통 활성화가 높을수록 성과가 높아지며, 여기에 더해 정보 투명성이 높으면 정보 투명성이 낮은 경우보다 언제나 성과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조직 관리자는 조직 성과를 높이기 위해 일정 정도의 갈등을 유지하도록 하여 의사소통 활성화를 높이고, 높은 수준의 정보 투명성을 유지해야 한다. (496자)

가. 문제지



한국외국어대학교 2023학년도 논술전형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계)

2022. 11. 27(일) [오전] 10:00 ~ 11:30

고사실번호		지원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	--	--------	--	------	--	----	--

[유의사항]

1. 시험 시간은 90분입니다.
2. 답안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볼펜, 연필, 또는 샤프를 사용해야 합니다.
3. 반드시 문항별 답안지 작성영역에 답안을 기재해야 합니다.
4. (띄어쓰기 포함) 답안의 정해진 작성 분량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답안 영역에 작성한 내용만 인정됩니다.
5. 답안에 자신을 드러내는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6. 답안에 제목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장승은 나무나 돌에 사람의 얼굴 모양을 새겨 마을 입구나 길가에 세운 조각상이다. 보통 위쪽에는 사람의 얼굴 형태를 그리거나 조각하고, 아래쪽에는 ‘천하대장군’이나 ‘지하 여장군’ 등의 글씨를 새긴다. 장승은 마을의 경계를 나타내거나 길을 안내하는 역할과 함께 잡귀와 질병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해주는 수호신의 기능을 수행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장승을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며 신성시했다. **마을 주민들**은 정기적으로 마을 곳곳을 거행하며 장승을 새롭게 깎아서 세워 전염병을 막고 잡귀를 물리는 기원을 하는 한편, 주민 전체의 결속을 다졌다. 장승제는 농사를 지으며 한 곳에 오랫동안 정착하여 살아왔던 농경사회의 각 마을이 단일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재구성

(나)

‘멀티 페르소나*’는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고 다양한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다중적 자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다중적 자아상을 지닌 **개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장소와 역할에 맞게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한 예로, 요즘 직장인들을 살펴보면 하나 이상의 다양한 직업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이들이 많은데, 이들을 ‘N잡러’라고 일컫는다. 또한 개인의 다양한 정체성이 취미나 여가 활동으로 연결돼 나타나면 ‘덕질’이나 취향 기반의 여러 활동으로 이어져 ‘취미 부자’로 불리게 된다. 실제로 SNS 활동과 관련하여, Z세대의 경우 평균 두 개 이상의 계정을 운영하면서 계정별로 상이한 자신의 라이프스타일과 정체성을 표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페르소나: 고대 그리스 시대 배우들이 쓰던 가면이라는 뜻으로 심리학과 철학에서는 이성과 의지를 지닌 채 자유로이 책임을 지며 행동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 <동아 비즈니스 리뷰> 재구성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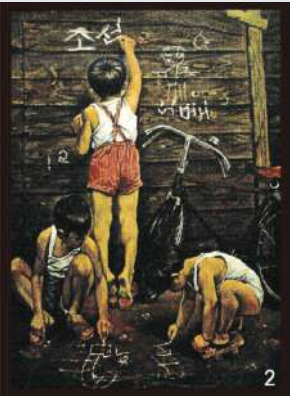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귀화 한국인 구00씨가 집 근처 사우나를 찾았다가 **카운터 직원**에게 문전박대를 당했다. 구00씨는 카운터 직원으로부터 외국인은 출입이 안 된다는 이유로 제지를 당하자 “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인은 단일민족이라는 인식을 가진 카운터 직원은 “당신의 외모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국적이 있어도 출입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입장을 막았다. 카운터 직원은 구00씨를 외국인으로 간주하며 “한국 손님들은 사우나에 외국인이 오는 걸 싫어한다.”라고 밝혔다.

- 고등학교 교과서 『사회문화』재구성

(라)

이 그림은 ‘재일조선미술회’ 소속 작가인 표세종이 1958년에 그린 <내년은 우리 학교에>라는 작품이다. 1953년에 설립된 재일조선미술회는 백림이라는 미술사학자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다. 백림의 연구에 따르면 재일조선미술회 소속 **작가들**은 한반도에 뿌리를 두고 일본에 사는 재일조선인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정체성을 그렸다고 한다. 실제 이들은 ‘재일조선인의 생활’, ‘재일조선인의 북한 귀국’, ‘4·19혁명’ 등 다양한 테마로 전시회를 개최했다. 백림은 이들에 관한 연구를 통해 성별이나 출신에 상관없이 다양한 삶과 정체성을 존중하는 사회에 관해 늘 생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2022. 1. 10.) 재구성



(마)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결혼 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등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초기에는 우리 사회에 대한 외국 출신 이주자의 적응을 중시하는 다문화정책을 시행하였다. 결혼 이민자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 전수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초기의 다문화정책은 동화주의에 가까워 소수 집단 문화를 한민족의 주류 문화에 일방적으로 동화시키려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이에 **최근 우리나라**는 문화 다원주의적 인식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다문화정책을 바꾸어 나가고 있다. 문화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고, 다양한 집단의 문화가 우리 사회 내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13년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개정하여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 다원주의 정책은 각 집단의 다양한 정체성을 존중하여 다문화 사회의 갈등을 방지하고 공존을 도모할 수 있게 한다. 다양한 문화의 공존은 사회 구성원에게 풍부한 문화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문화 창조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또 다문화 사회를 구성하는 각 집단과 모국 사이의 네트워크를 긴밀하게 하여 경제·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고, 국가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

* 결혼이민자등: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결혼 이민자나 귀화 허가를 받은 자를 일컫는다.

- 고등학교 교과서 『사회문화』 및 『통합사회』 재구성

(바)



<통일신라의 9주 5소경>

삼국통일 직후, **통일신라**는 삼국을 하나로 통일했음을 뜻하는 삼한일통의식(三韓一統意識)이라는 새로운 통합 정체성을 내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옛 고구려인, 백제인, 신라인을 하나로 묶는 삼국유민 통합정책을 추진했다. 통일신라는 하나의 독립된 천하를 상징하는 중국의 9주제를 도입하여 전국을 9개 주로 편성하였는데, 삼국의 옛 땅에 각각 3개 주를 두어 대등하게 대하면서도 하나로 통합하려 했다. 이를 통해 통일신라는 옛 삼국을 통합한 통일국가로서의 단일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장기적 국가 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삼국 유민 사이의 갈등을 극복하고, 늘어난 영역과 백성을 효율적으로 다스려 경제적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 또 통일신라는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던 당의 동방정책을 무산시키고, 주변국과의 외교교섭을 활발하게 전개해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아울러 종전의 삼국 문화를 융합하여 새로운 석탑 양식을 창출하는 등 문화적으로도 크게 융성하였다.

- 고등학교 교과서 『한국사』 재구성

[문제 1]

밑줄 친 주체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기준으로 (가) ~ (바)를 두 유형으로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400자 내외, 210점)

[문제 2]

(바)의 통일신라와 <보기>의 영국의 사례에 나타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체성의 특징을 비교하고, 그 결과를 국가 발전의 관점에서 평가하시오. (450자 내외, 210점)

<보기>

1993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발효로 EU(유럽연합)가 출범하고, 이는 유럽시민이라는 새로운 통합 정체성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통합 정체성은 2002년 단일화폐인 유로화의 사용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많은 유럽인들은 국적에 상관없이 유럽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자국의 국가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유럽시민이라는 공동 정체성을 널리 확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영국은 2016년에 EU를 탈퇴하는 브렉시트(Brexit)’를 결정하였다. 브렉시트를 결정한 영국의 정책은 영국인의 국가 정체성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영국인의 경우 새롭게 형성된 유럽시민으로서의 초국가적 정체성을 부정하고 오래전에 확립된 기존의 자국 정체성만 인정하는 비율이 EU의 다른 회원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62%라는 수치를 보여주었다. 한편 많은 연구들이 브렉시트를 영국의 장기적 비전 결여와 연관 짓기도 한다. 영국인들은 EU 분담금에 대한 불만 등의 단기적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장기적 발전 전략을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채 투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유럽집행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국제적 입지가 약화되고 있다. 아울러 영국인들은 EU의 후원 아래 개최되는 수많은 행사 및 에라스무스와 같은 교육·학술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이 크게 제한되어, 사회·문화적인 타격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영국 정부의 보고서에서는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의 무역 손실이 크게 확대되고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도 약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 브렉시트(Brexit): 영국을 뜻하는 Britain과 탈퇴를 뜻하는 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EU 탈퇴를 일컫는다.

- 윤성욱, 2017 『양날의 칼로서의 영국 정체성』 『영국연구』 재구성

[문제 3]

<보기>의 밑줄 친 주체의 희망을 구현하기 위한 독일 정부의 정책 방향과 그에 따른 긍정적 유발 효과를 (마)를 참조하여 추론하시오. (500자 내외, 280점)

<보기>

In the 1960s, without a sufficient workforce to hold an economic boom, the West German government allowed Turkish laborers to enter the country. Over three million Turkish workers immigrated to Germany with their families, building a big Turkish community. West Germany encouraged the immigrants, young children in particular, to learn German for successful assimilation*. Although this strategy appeared effective in uniting different groups of immigrants, Turkish included, it led to serious communication and identity problems. Many studies find that the second language learning is facilitated when the home language is fully developed. Children of Turkish descent in Germany had difficulty learning German because they were not given enough time to learn their home language, Turkish, due to the assimilation policy. This is why **the Turkish mothers**, who were unable to communicate with their children properly, began to resist the German government’s emphasis on assimilation. In other words, they wanted their children to settle down and be successful in Germany without losing their home language and Turkish identity.

* assimilation: 동화, 흡수

- Austin Davis, 2015 “Repairing the Cultural Divide”, Pulitzer Center 재구성

나. 출제의도

인문계(오전) 논술고사는 세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제 1]은 분류·요약, [문제 2]는 비교·평가, [문제 3]은 적용·추론의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세 문항 중 [문제 3]은 외국어 지문의 이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영어 지문을 제시하였다. 각 문항마다 개별적인 측정 의도가 반영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여러 제시문의 핵심어, 요지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분류, 연계하는 능력도 동시에 측정하고자 하였다.

2023년 논술 시험부터 시험 시간이 기존의 100분에서 90분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전체 답안 분량을 1,500자 내외에서 1,350자 내외로 줄였다. [문제 1]의 답안 분량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400자 내외이며, [문제 2]의 답안 분량은 기존의 500자 내외에서 450자 내외로, [문제 3]은 기존의 600자 내외에서 500자 내외로 조정하였다. 각 문항 당 배점은 기존과 동일하다.

각 문항별 출제 의도는 아래와 같다.

[문제 1]에서는 제시문 (가)부터 (바)까지의 네 개의 제시문을 읽은 후 제시문이 말하는 바를 ‘단일 정체성’과 ‘다중 정체성’의 두 핵심어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네 개의 제시문을 각각 요약하게 함으로써 핵심어를 중심으로 한 요지 파악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정체성 인식을 기준으로 글을 분류하면 (가),(다),(바)는 단일 정체성에 해당하며 (나),(라),(마)는 다중 정체성에 해당한다.

[문제 2]에서는 [문제 1]에서 제시된 두 개념인 단일 정체성과 다중 정체성을 확장해서 이해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시문(바)의 통일신라의 경우, 옛 신라 고유의 국가 정체성 대신 고구려인, 백제인까지 하나로 묶기 위한 삼한일통의 식을 정립한 뒤 이를 바탕으로 삼국유민 통합정책을 추진하였다. <보기>에서 영국의 경우, 유럽시민이라는 공동의 정체성보다, 오래 전부터 형성되어 온 자국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강했고, 이는 브렉시트에 이르는 정책으로 연결되었다. 국가발전의 관점에서 통일신라와 영국의 결정을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다. 통일신라의 경우, 새로운 통합 정체성과 장기적인 국가 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경제적, 국제적, 문화적 발전을 누리게 된 반면, 영국은 자국의 국가 정체성에 매몰되어 장기적 발전 전략 없이 브렉시트를 결정함으로써 경제적, 국제적, 사회문화적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문제 3]은 제시된 영어 지문에서 밀줄 친 주체(터키 이주노동자 어머니들)의 희망을 구현하기 위한 독일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2013년 한국의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참조하여 독일 정부의 다문화 정책에 조언할 수 있는 부분과 이에 따른 긍정적 유발 효과를 추론하는 것이다. 추론 과정에서 제시문 (마)를 활용해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응시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에 따른 결론이 아니라 정해진 하나의 결론으로 추론을 진행해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문제에 대한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과정들이 적절히, 그리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주어진 영어지문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 요지를 파악해야 한다. 둘째, 밀줄 친 주체의 희망을 어떻게 독일정부의 정책방향에 제시하면 좋을지 기술한다. 셋째, 제시문 (마)를 참고하여 독일정부의 다문화 정책 방향이 어떻게 긍정적 유발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추론한다.

다. 문항해설

문항	채점요소	배점
문제1	- 여섯 개의 제시문을 읽고 ‘단일 정체성’과 ‘다중 정체성’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를 추출할 수 있어야 함 - 여섯 개의 제시문이 위 두 개의 키워드 ‘단일 정체성’과 ‘다중 정체성’ 중 무엇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냐에 따라 (가), (다), (바)는 단일 정체성으로, 그리고 (나), (라), (마)는 다중 정체성으로 분류할 수 있어야 함 - 각 제시문의 요지를 단일 정체성과 다중 정체성, 혹은 이와 유사한 의미의 대립쌍으로 요약할 수 있어야 함	210
문제2	[문제1]의 두 유형 분류에 따라 (바)와 <보기>의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비교 정리해야 함 (바)는 다양한 정체성이 공존하는 통합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통합정책을 추진하였다는 점 <보기>는 단일 자국 정체성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하였다는 점 - 통일신라와 영국이 취한 정책의 결과를 국가 발전의 관점에서 평가해야 함 - 국가 발전을 경제적, 국제적, 문화적 세 가지 하위 차원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함 - 통일신라의 경우, 새로운 통합 정체성과 장기적인 국가 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확장된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려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높였으며, 삼국의 문화를 융합하여 문화적인 융성을 이루었음 - 영국은 자국의 국가 정체성에 매몰되어 장기적 발전 전략 없이 브렉시트를 결정함으로써 무역 손실, 금융중심지로의 위상 약화, 국제적 입지 약화, 사회문화적 교류 제한이라는 부정적 결과가 예상되는 상황에 봉착함	210
문제3	<보기>의 영문지문을 읽고 밀줄 친 주체의 희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독일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함 (마)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함 - 앞서 분석한 (마)에 비추어 <보기> 지문의 밀줄 친 주체의 희망을 구현하기 위한 독일의 다문화 정책 방향을 제시 - 제시한 정책에 대한 긍정적 유발 효과를 추론 - 위 과정들이 적절한 어휘 선택과 논리적인 구성을 통해 가독성 있게 서술되어야 함	280

라. 채점기준

[문제 1]

등급		채점 기준
A	A+	- 다음과 같은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 여섯 개의 제시문이 위 두 개의 키워드 ‘단일 정체성’과 ‘다중 정체성’ 중 무엇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냐에 따라 (가), (다), (바)는 단일 정체성으로, 그리고 (나), (라), (마)는 다중 정체성으로 분류하여 기술 - 각 제시문의 요약에 (가) 마을 주민의 단일 정체성 (나) 개인의 다중 정체성 (다) 단일민족이라는 인식 바탕으로 한 단일 정체성 (라) 재일조선인 작가들의 다중 정체성 (마) 우리나라의 문화 다원주의적 인식, 다중 정체성 (바) 삼한통일의식과 통합 정체성 - 등의 핵심어/유사어를 포함하여 기술한 경우
	A0	- 내용 측면에서 위의 A+ 조건을 모두 충족하나 핵심어 대신 근접어를 사용한 경우 - 문장구성, 연결 등이 다소 매끄럽지 않은 경우
B	B+	- 제시문들을 상반되는 두 유형으로 분류하고 요약했지만 ‘단일 정체성’과 ‘다중 정체성’ 개념에 대한 기술이 미흡한 경우 - 각 제시문의 요약문이 가독성이 낮은 경우
	B0	제시문들을 상반되는 두 유형으로 분류하고 요약했으나 ‘단일 정체성’과 ‘다중 정체성’의 구분이 적절하지 못하고 제시문들의 입장 분류 및 요약 또한 부실한 경우 (예: 제시문들 간의 분류가 부분적으로 잘못된 경우)
C		제시문 중 일부만을 요약하거나 제시문들을 상반되는 두 유형으로 분류하지 못한 경우
D		일부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였으나 답과 거리가 멀고 글자 수를 현저히 채우지 못한 경우
F		문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관련 없는 내용을 서술한 경우

[문제 2]

등급		채점 기준
A	A+	• 답안의 내용 면에서 아래 다섯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바)는 다양한 정체성이 공존하는 통합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통합정책을 추진하였다는 점 - <보기>는 단일한 자국 정체성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하였다는 점 - 국가 발전의 하위 차원 (경제적/국제적/문화적) 중 한 개 이상이 분류 기준에서 누락된 경우 - 통일신라의 경우, 새로운 통합 정체성과 장기적인 국가 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확장된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려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높였으며, 삼국의 문화를 융합하여 문화적인 융성을 이루었음 - 영국은 자국의 국가 정체성에 매몰되어 장기적 발전 전략 없이 브렉시트를 결정함으로써 무역 손실, 금융중심지로의 위상 악화, 국제적 입지 악화, 사회문화적 교류 제한이라는 부정적 결과가 예상되는 상황에 봉착함 • 답안의 내용뿐만 아니라 어휘, 표현, 문장, 단락 구분 등에 있어 오류가 (거의) 없는 경우 • 주어진 자수(500자)±10%의 오차 이내로 작성해야 함
	A0	• A+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어휘 사용이 다소 부정확함 - 관용구, 표현 등이 일부 부자연스러움 - 문장 간 연결이 다소 매끄럽지 못함 - 단락 구분에 작은 오류가 있음 • 주어진 자수 ± 10%의 오차를 다소 벗어나 작성됨
B	B+	• 내용면에서 A0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바)의 정체성의 특징이 설명되지 않거나, 잘 못 설명 된 경우 - <보기>의 정체성의 특징이 설명되지 않거나, 잘 못 설명 된 경우 - 국가 발전의 하위 차원 (경제적/국제적/문화적) 중 한 개 이상이 분류 기준에서 누락된 경우 - (바)의 국가발전 관점이 세 가지 하위 차원에서 설명되지 않은 경우 - <보기>의 국가발전 관점이 세 가지 하위 차원에서 설명되지 않은 경우
	B0	• 내용 측면에서 B+ 기준에 해당하고,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어휘 사용이 전반적으로 부정확함 - 관용구, 표현 등이 전반적으로 부자연스러움 - 문장 간 연결이 전반적으로 매끄럽지 못함 - 단락 구분에 오류가 많음
C		• 내용 측면에서 다음 항목 중 두 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바)의 정체성의 특징이 설명되지 않거나, 잘 못 설명 된 경우 - <보기>의 정체성의 특징이 설명되지 않거나, 잘 못 설명 된 경우 - 국가 발전의 하위 차원 (경제적/국제적/문화적) 중 한 개 이상이 분류 기준에서 누락된 경우 - (바)의 국가발전 관점이 세 가지 하위 차원에서 설명되지 않은 경우 - <보기>의 국가발전 관점이 세 가지 하위 차원에서 설명되지 않은 경우
D		• C의 항목에서 세 항목 이상 잘못 전달된 경우 • 글자 수(공백 포함)가 200자 이하인 경우
F		• 글자 수와 상관없이 문제와 아무런 관련 없는 내용을 서술한 경우 • 답안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문제 3]

등급		채점 기준
A	A+	• 영어 지문에서 제시된 밑줄 친 주제(터키 이주노동자 어머니들)의 희망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가 답안 전반에 잘 드러나야 함 • 기존의 독일정부의 정책방향과 밑줄 친 주체의 희망을 반영한 독일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 - 모국어 언어교육과 독일어 학습 수월성 - 모국 정체성과 독일사회 성공적 정착 • <보기> 영어지문과 연관 지어 제시한 (마)의 제시문을 이해하고 요지 축출 • (마)의 내용을 적절히 활용하여 독일 다문화 정책의 긍정적 유발 효과 추론 - 다양한 문화 공존, 풍부한 문화적 경험 제공 - 새로운 문화창조의 원동력 - 이주집단과 모국 사이의 네트워크 - 국가경쟁력 제고 • 문장의 표현이 매끄러움 (예: 일관적인 형식, 적절한 어휘의 사용) • 문장의 연결과 구성이 자연스럽고 논리적임 (예: 적절한 접속사를 사용한 연결) • 주어진 자수(500자)±10%의 오차 이내로 작성
	A0	

A	A0	• A+ 기준을 대체로 충족하나 다음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 문장의 표현이 명확하지 않거나 문장의 연결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음 - 제시문의 주요구절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음 - 어휘 사용의 실수가 드물게 나타남 - 사소한 문법 오류가 드물게 나타남
	B+	• A0 기준을 대체로 충족하나 다음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 영어 지문에 나타난 요지의 이해가 완벽하지 않음 - 보기 지문 밑줄 친 주체의 희망을 다소 동 떨어지게 파악 - 독일일의 기존 다문화 정책과 제시한 정책의 차이 제시하지 못함 - (마) 제시문과 보기 지문의 유기적인 연결하지 못함 - 문장의 표현이나 연결이 매끄럽지 않음 - 어휘 사용의 실수가 가끔 나타남 - 특정한 문법 오류가 반복적으로 나타남
B0		• B+ 기준을 대체로 충족하나 B+의 감점 요인이 2항목 이상 포함됨
C		• 문제에 대해 일부만 답을 함 • 위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복합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남
D		• 일부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였으나 문제의 답과 거리가 멀 • 답안 작성을 중간에서 멈춘 경우 • 글자 수가 250자 미만인 경우
F		• 글자 수와 상관없이 문제와 아무런 관련 없는 내용을 서술한 경우 • 답안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마. 예시답안

[문제 1]

주체의 정체성 인식을 기준으로 글을 분류하면 (가),(다),(바)는 단일 정체성에 해당하며 (나),(라),(마)는 다중 정체성에 해당한다. (가)의 마을 주민들은 장승제를 통해 농경사회의 단일 정체성을 형성하고 살아간다. (다)의 카운터 직원은 한국인은 단일민족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단일 정체성을 보여준다. (바)의 통일신라는 삼한일통의식이라는 새로운 통합 정체성을 통해 단일한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다. 반면, (나)의 개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장소와 역할에 맞게 다양하게 변화시키는 다중 정체성을 보여준다. (라)의 작가들은 한반도에 뿌리를 두고 일본에 살아가는 다중 정체성을 그림으로 표현한다. (마)의 최근 우리나라는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추구하는 문화 다원주의적 인식을 통해 다중 정체성을 강조한다. [400자]

[문제 2]

통일신라의 삼국 유민 통합 정책에 영향을 미친 정체성은 삼한일통의식인데, 이는 삼국통일 이후 새롭게 내세워진 통합 정체성이다.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영국의 자국 정체성인데, 이는 새로운 통합 정체성이 아니라 오래전에 확립된 기존의 단일한 국가 정체성이다. 국가 발전에 대한 관점은 경제적 번영, 국제적 위상, 문화적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 통일신라의 경우, 새로운 통합 정체성과 장기적인 국가 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확장된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려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높였으며, 삼국의 문화를 융합하여 문화적인 융성을 이루었다. 영국은 자국의 국가 정체성에 매몰되어 장기적 발전 전략 없이 브렉시트를 결정함으로써 무역 손실, 금융중심지로의 위상 악화, 국제적 입지 악화, 사회문화적 교류 제한이라는 부정적 결과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450자]

[문제 3]

밑줄 친 주체는 터키 이주노동자 가족의 어머니들로서 자녀들에 대한 모국어 교육의 부족으로 자녀들과의 언어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이들은 자녀들이 모국어인 터키어와 터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은 채 독일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마)에서 우리나라는 2013년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개정하여 한국어 교육뿐 아니라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를 참조하면 독일 정부는 독일어뿐 아니라 터키 이주노동자의 모국어인 터키어 교육까지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국어 교육의 강화를 통해 독일어 학습도 수월하게 함으로써 독일 사회에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할 수 있다. (마)를 참조하면, 이러한 정책으로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도모하여 갈등을 방지하고, 풍부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여 새로운 문화창조의 원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 나아가 이주집단과 모국 사이의 네트워크를 긴밀하게 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500자]

가. 문제지



한국외국어대학교 2023학년도 논술전형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계)

2022. 11. 27.(일) [오후] 15:00 ~ 16:30

고사실번호		지원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	--	--------	--	------	--	----	--

[유의사항]

1. 시험 시간은 90분입니다.
2. 답안작성은 반드시 검은색 볼펜, 연필, 또는 샤프를 사용해야 합니다.
3. 반드시 문항별 답안지 작성영역에 답안을 기재해야 합니다.
4. (띄어쓰기 포함) 답안의 정해진 작성 분량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답안 영역에 작성한 내용만 인정됩니다.
5. 답안에 자신을 드러내는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6. 답안에 제목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미래학자 **커즈와일**은 2045년쯤에는 인공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특이점을 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AGI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적 업무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기계지능을 말한다. 많은 과학자들이 인공지능의 출현이 인류를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커즈와일은 오히려 인류의 이상 세계가 도래할 것이라 주장한다. “인공지능과 인간의 두뇌는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인간은 더 인간적이 되고 더 독특해지며 심지어는 신에 가까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커즈와일에 따르면, 디지털 생활이야말로 우주 진화에서 이상적인 다음 단계이다. 따라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디지털 마인드를 멈춰 세우거나 노예로 만들려 할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풀어 놓아야만 한다.

- 유희경, 『AI 곧 ‘인간 지능’ 능가』 재구성

(나)



마키아벨리는 이전의 도덕철학자와 정치철학자를 비판하면서, 가상의 공화국이나 군주정이 아니라 군주가 실제로 활동하는 현실 세계에 관해서 논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이익과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인간의 실제 모습을 외면하고 이상만 추구하면 몰락할 수밖에 없으며, 권력을 유지하려면 현실의 필요에 따라서 선하지 않을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대한 업적을 성취한 군주들이 신의를 중시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만책에 능한 인물이었음에 주목했다. 그래서 선보다는 악이 우세한 현실 세계 속에서 국가의 보존이라는 현실적 목표를 위해 군주는 선과 악을 적절히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고 보았다.

- 강정인과 정승현, 『동서양의... 한비자와 마키아벨리』 재구성

(다)

1945년 8월 15일, 역사적인 날.

이날도 신기료장수* **방삼복**은 종로의 공원 건너편 응달에 앉아서, 구두 짚을 박으면서, 해방의 날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삼복은 감격한 줄도 기쁜 줄도 모르겠었다. 지나가는 행인이, 서로 모르던 사람끼리면서 덩석 서로 껴안고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것이, 삼복은 속을 모르겠고 차라리 쑥스러 보일 따름이었다. 몰려 닫는 군중이 오히려 성가시고, 만세 소리가 귀가 아파 이 맛살이 지푸러질 지경이었다.

몰려다니고 만세를 부르고 하기에 미쳐 날뛰느라고 정신이 없어, 손님이 없어, 손님이 부족 줄었다.

“우랄질! 독립이 배부른가?”

이렇게 그는 두런거리면서 반감이 솟았다.



이삼일 지나면서부터야 삼복에게도 삼복에게다운 해방의 혜택이 나누어졌다.

십 전이나 십오 전에 박아 주던 징을, 오십 전을 받아도 눈을 부라리는 순사를 볼 수가 없었다. 순사가 없어졌다면야, 활개를 쳐가면서 무슨 짓을 하여도 상관이고 무서울 것이 없던 것이었다.

“웁아, 그렇다면 독립도 할 만한 건가 보다.”

삼복은 징 열 개를 박아 주고 오 원을 받아 넣으면서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리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며칠이 못 가서 삼복은 다시금 해방을 저주하여야 하였다. 삼복이 저 혼자만 돈을 더 받으며, 더 받아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첫째 도가(都家)**들이 제 맘대로 재료 값을 올리던 것이었다. 징, 가죽, 고무, 실 모두가 오 곱 십 곱 비싸졌다. 그러니 신기료장수는 손님한테 아무리 비싸게 받는댔자 재료를 비싼 값으로 사야 하니, 결국 도가만 살찌울 뿐이지 소득은 전과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

“이런 엠병혈! 그놈에 경제겐 다 어디루 가 뒤흔어. 독립은 우라진 다구 독립을 헌담.”

석양 때 신기료 께짝 어깨에 멘 채 찾김에 막걸리청으로 들어가, 서너 사발 들이켜고는 그는 이렇게 게걸러었다.

그럭저럭 구월도 열흘이 되고, 서울 거리에는 미국 병정이 꼬마차와 함께 그득히 퍼졌다.

그 미국 병정들이, 거리를 구경하면서 혹은 물건을 사려면서, 말이 서로 통하지를 못하여 답답해하는 양을 보고 삼복은 무릎을 탁 쳤다.

[중략]

신기료장수 코빼돌이 삼복이 미스터 방으로 승차를 하여, S라는 미국 주둔군 소위의 통역이 되었다.

*신기료장수: 헌 신을 꿰매어 고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도가(都家): 도매상

- 채만식, 『미스터 방』 중에서

(라)

중국 전한(前漢)의 외척 왕망은 젊은 시절 검소한 생활과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효도로 칭송을 받았다. 유교적 이념을 실천하면서 명망을 얻은 왕망은 불과 38세에 재상인 대사마가 되어 왕씨 일족을 대표하는 지위에 올랐다. 권력을 잡은 왕망은 기원후 8년에 '선양(禪讓)'이라는 유교의 이상적 왕위 계승 방식으로 어린 황제에게서 천자의 자리를 양보받고, 국호를 '신(新)'으로 바꿨다. 왕망의 꿈은 유교적 이상 국가를 실현하는 것이었고, 그 방법을 유교 경전인 『주례』에서 찾았다. 관명, 지명 등을 모두 변경하였고, 대토지 소유 제한 및 토지 균등 분배, 노비 매매 금지 등의 개혁 정책을 급진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그의 개혁은 현실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책상 위에서 관념적으로 추출한 것이었기 때문에 객관적 현실에서 힘을 얻기 어려웠다. 결국 대부분의 개혁 정책들이 백성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지방 호족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폐지되었다. 기원후 23년, 호족 및 군 내부의 반란과 백성들의 봉기로 신나라는 멸망하고, 왕망도 반군의 손에 죽음을 맞았다.

- 최준채 외, 『고등학교 세계사』 재구성

(마)

경제학은 18세기 말 그 학문이 출발할 때부터 유토피아에 관한 학문이었다. 특히 유토피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일 수 있는 물질적 행복을 지속적으로 탐구하였다. 그래서 초창기부터 경제학자들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최대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나라 혹은 제도가 어떤 것인지 연구했다. 한 나라의 '부'에 대한 연구인 『국부론』을 쓴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뿐만 아니라, 그의 한 세대 후배들인 맬서스와 리카도도 그랬다. 경제학이 유토피아에 관한 학문인 만큼, 경제학자들도 유토피아를 꿈꾸는 유토피안들이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유토피아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이고 냉철하게 분석한다는 점에서 경제학에 입각하지 않은 유토피아 사상가들과는 명백히 다르다. 위대한 경제학자 마셜의 말처럼 경제학자는 “뜨거운 가슴뿐만 아니라 냉철한 이성을 동시에 갖춘” 사람들이다.

- 김세직, 『모방과 창조』 재구성

(바)

독재정권이 들어선 A국에서는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심각한 기근이 지속되고 어린이들에게 치명적인 전염병까지 확산하면서 수많은 어린이가 목숨을 잃고 있다. 그런데도 독재정권은 정치 권력 장악에 몰두하면서 기근과 질병 관리는 등한시해 국민의 삶을 더욱더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국제단체들은 A국 독재정권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로 하였으며, 대표적인 인권보호단체 W도 여기에 동참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인권보호단체 W는 A국 어린이의 기아 및 전염병 문제를 긴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구호식량과 백신을 현지에 직접 보급하고자 한다. 하지만 A국 독재정권은 자신들을 비판하는 단체가 A국에 입국하거나 구호 물품을 보내오는 것을 철저히 막고 있다. 실제로 이 정권을 비판했던 구호단체들은 입국과 모든 구호 활동이 거부되었다. 결국 W는 국제단체들의 요구에 침묵하고 어린이들의 목숨을 구하기로 결정하였다.

- 애덤 파이필드, 『휴머니스트 오블리주』 재구성

[문제 1]

(가)~(라)에서 밑줄 친 인물을 '이상 지향'과 '현실 지향'의 두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인물의 관점을 요약하시오. (400자 내외, 210점)

[문제 2]

아래 <보기>의 관점에서 (라)의 '왕망'과 (마)의 '경제학자'를 비교·평가하시오. (450자 내외, 210점)

<보기>

Like oil and vinegar, ideals and reality never fully dissolve into one another and tend naturally to separate if left alone. To combine, they need to be regularly stirred up together if they are to make good vinaigrette'. Also, like oil and vinegar, idealism and realism are better together. Each on their own is never enough. A passion for ideals alone will never make a good leader. She or he also needs a gritty"" realism to guide them as they try to bring influence to bear in very worldly situations which are usually not ideal at all.

*vinaigrette: 비네그레트(식초에 갖가지 허브를 넣어 만든 샐러드용 드레싱)

**gritty: 불편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문제 3]

(바)의 W가 처한 상황을 '이상'과 '현실'을 중심으로 요약하고, 아래 <보기>에서 언급된 원칙을 준용하여 W의 결정이 왜 타당한지를 추론하시오. (500자 내외, 280점)

<보기>

국가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을 이상적인 목표로 하지만, 현실에서는 복잡하고 특별한 요인들을 고려해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도 한다. '과잉금지 원칙'은 국가의 이러한 기본권 제한이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 중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이 되면 안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1) 목적의 정당성: 기본권 제한의 목적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수단의 적합성: 기본권 제한의 방법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야 한다.

(3) 침해의 최소성: 침해가 적은 다른 방법은 없는지를 모색함으로써 피해가 최소한이 되도록 해야 한다.

(4) 법익의 균형성: 기본권 제한으로 얻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더 커야 한다.

나. 출제의도

인문계(오후) 문항 세트는 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 1]은 분류·요약, [문제 2]는 비교·평가, [문제 3]은 적용·추론의 능력을 평가한다. 세 문항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도록 (가)~(바)를 제시한 후, [문제 2]에만 사용되는 영어 지문과 [문제 3]에만 적용되는 <보기>를 추가로 배치하였다. 문항마다 독립적인 능력을 평가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지만, 특정 문항에서는 두 개 이상의 지문을 기반으로 핵심어, 요지, 영어 텍스트를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확인하도록 했다.

[문제 1]에서는 (가)~(라)의 밑줄 친 인물을 ‘이상 지향’과 ‘현실 지향’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 따라 분류하고 각 인물의 관점을 요약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가), (라)를 ‘이상 지향’으로 분류하고, (나), (다)를 ‘현실 지향’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또한 ‘이상 지향 vs 현실 지향’이라는 관점으로 네 개의 제시문을 요약할 수 있는지도 평가하고자 했다.

[문제 2]에서는 비유(‘식용유와 식초의 관계 ≈ 이상과 현실의 관계’)가 담긴 짧은 영어 지문을 기반으로 서로 다른 두 인물을 평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이 문제에서는 (1) 영어지문을 해석하고 두 핵심어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 (2) 하나의 판단 근거를 활용해 서로 다른 두 상황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영어 <보기>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번역] 이상과 현실은 식용유와 식초처럼 완전히 융해되지 않고 가만히 두면 저절로 분리된다. 좋은 비네그레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식용유와 식초를 계속 저어줘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는 서로 섞여야 하며, 어느 하나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상에 대한 열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상과 동떨어진 현실 세계에서 리더가 힘을 발휘하려면 자신을 이끌 수 있는 냉철한 현실주의가 필요하다.

*비네그레트: 식초에 갖가지 허브를 넣어 만든 샐러드용 드레싱

이 주장에 따르면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어느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고 두 관점을 모두 지녀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라)의 ‘왕망’과 (마)의 ‘경제학자’가 완전히 다른 인물 유형임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왕망은 현실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이상만을 추구한 사람이지만, 경제학자는 유토피아(이상)를 꿈꾸지만 유토피아의 실현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냉철하게 분석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경제학자는 <보기>에서 주장하는 리더의 모습과 가깝고, 왕망은 리더의 모습과 거리가 있다.

[문제 3]에서는 ‘이상’과 ‘현실’이라는 두 핵심어를 바탕으로 제시문 (바)를 요약하고, 추론의 근거로 제시된 <보기>를 준용하여 (바)의 사례를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하도록 했다. (바)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인권보호단체 W의 이상은 A국 정권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에 동참하고, 전염병과 기근으로 목숨을 잃고 있는 A국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동성명에 동참할 경우 A국에 입국조차 할 수 없어 아이들의 목숨을 구할 수 없다.

이 문제에서의 핵심은 ‘과잉금지 원칙’이라는 법적 개념을 인권 관련 딜레마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추론하는 것이다. 판단 근거로 제시된 ‘원칙’과 (바)에서 묘사된 ‘상황’이 다른 개념 영역에 있으므로 둘 간의 관계를 연결하는 것이 본 문제의 핵심이다.

<보기>에 제시된 원칙을 (바)의 사례와 요소별로 연계하면 다음과 같다.

- (1) 목적의 정당성: 구호활동을 통해 A국 어린이를 살리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치이다.
- (2) 수단의 적합성: 국제단체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수많은 어린이를 구할 수 있다.
- (3) 침해의 최소성: 독재정권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에 동참하면 다른 단체처럼 입국 및 구호활동이 거부된다.
- (4) 법익의 균형성: 국제단체의 요구에 응하면 인권보호라는 가치를 지킬 수는 있지만 수많은 아이가 목숨을 잃는다. 구호 활동을 통해 얻는 ‘이익’이 공동성명에 동참하여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

다. 문항해설

문항	채점요소	배점
문제1	- 네 개의 제시문을 읽고 ‘이상지향’과 ‘현실지향’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를 추출할 수 있어야 함 - 네 개의 제시문에서 밑줄 친 인물이 위 두 개의 키워드 ‘이상지향’과 ‘현실지향’ 중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가)와 (라)는 이상지향으로, (나)와 (다)는 현실지향으로 분류할 수 있어야 함 - 각 제시문의 요지를 이상지향, 현실지향, 혹은 이와 유사한 의미의 대립쌍으로 요약할 수 있어야 함	210
문제2	- (라)의 ‘왕망’과 (마)의 ‘경제학자’의 관점을 (보기)에서 드러난 관점을 바탕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함 (1) (라)의 ‘왕망’은 현실을 도외시한 유교적 이상주의를 추구한 반면, (마)의 경제학자는 유토피아라는 이상을 추구하되 그 실현가능성에 대한 현실적이고 냉철한 분석을 아우름 (2) (보기)는 본디 섞이지 않는 물과 식용유도 좋은 비네그레트를 만들기 위해 휘저어 섞어야 하는 것처럼, 좋은 리더는 이상만 추구해선 안되고 일정한 현실주의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내용임 (3) (보기)의 관점에서 (라)는 부정적으로 (마)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210
문제3	- 인권보호단체 W가 처해 있는 딜레마 상황을 이해하고, W가 내린 결정을 <보기>의 내용을 토대로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함 (1) 인권보호단체 W는 인권보호라는 이상을 위해 일하지만, 인권침해가 빈번한 A국에 입국해서 기아와 질병으로부터 어린 이들을 지키는 구호활동을 펴기 위해서는 독재국가 비판 성명에 동참하지 않아야 함 (2) <보기>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존중이라는 이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현실적 이유로 이를 불가피하게 제한할 경우 총족시켜야 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임 (3) 이 원칙의 네 가지 구성요소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비추어 볼 때 W의 결정이 이 네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 타당하다고 추론할 수 있어야 함	280

라. 채점기준

[문제 1]

등급		채점 기준
A	A+	• 다음과 같은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 4개의 제시문을 ‘이상지향’과 ‘현실지향’이라는 두 입장으로 나누되, 제시문 (가)와 (라)를 이상지향으로, (나)와 (다)를 현실지향으로 분류하여 기술 - 각 제시문의 요약에 (가) 인공지능, 이상세계, 이상적 단계 (나) 현실세계, 현실적 목표, 이익과 욕망 (다) 독립이라는 이상, 개인 이익, 현실주의적 (라) 이상주의, 객관적 현실 무시 등의 핵심어/유사어를 포함하여 기술한 경우
	AO	• 내용 측면에서 위의 A+ 조건을 모두 충족하나 핵심어 대신 근접어를 사용한 경우 또는, • 문장구성, 연결 등이 다소 매끄럽지 않은 경우
B	B+	• 제시문들을 상반되는 두 유형으로 분류하고 요약했지만 ‘이상지향’과 ‘현실지향’에 대한 기술이 미흡한 경우, 또는 • 각 제시문의 요약문이 가독성이 낮은 경우
	BO	• 제시문들을 상반되는 두 유형으로 분류하고 요약했으나 ‘이상지향’과 ‘현실지향’의 구분이 적절하지 못하고 제시문 속 인물들의 관점 분류 및 요약 또한 부실한 경우 (예: 제시문들 간의 분류가 부분적으로 잘못된 경우)
C		• 제시문 중 일부분만을 요약하거나 제시문들을 상반되는 두 유형으로 분류하지 못한 경우
D		• 일부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였으나 답과 거리가 멀고 글자 수를 현저히 채우지 못한 경우
F		• 문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관련 없는 내용을 서술한 경우

[문제 2]

등급		채점 기준
A	A+	- 내용 측면에서 아래 다섯 가지를 모두, 명확하게 전달한 경우 (보기)는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절충이 필요함을 주장 (라)의 밀줄친 인물은 현실을 무시한 극단적 이상주의의 예 (마)의 경제학은 이상을 추구하되 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토대로 한 경우 (보기)의 입장에서 (라)는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 (보기)의 입장에서 (마)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 - 답안의 내용뿐만 아니라 표현, 문법, 단락 구성 등에 있어 오류가 (거의) 없는 경우 - 답안의 가독성(readability)이 매우 높은 경우
	A0	- 내용 측면에서 A+ 기준을 충족하나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어휘 사용이 다소 부정확함 - 관용구, 표현 등이 일부 부자연스러움 - 문장 간 연결이 다소 매끄럽지 못함 - 단락 구분에 작은 오류가 있음
B	B+	- 내용 측면에서 A0 기준을 충족하나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보기)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경우 (라)의 밀줄친 인물의 관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경우 (마)의 내용이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경우 (보기)의 관점에서 (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전달되지 않은 경우 (보기)의 관점에서 (마)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전달되지 않은 경우
	B0	- 내용 측면에서 B+ 기준에 해당하고,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어휘 사용이 전반적으로 부정확함 - 관용구, 표현 등이 전반적으로 부자연스러움 - 문장 간 연결이 전반적으로 매끄럽지 못함 - 단락 구분에 오류가 많음
C		- 내용 측면에서 다음 항목 중 두 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보기)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경우 (라)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경우 (마)의 관점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경우 (보기)의 관점에서 (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전달되지 않은 경우 (보기)의 관점에서 (마)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전달되지 않은 경우
D		- C의 항목에서 세 항목 이상 잘못 전달된 경우 - 글자 수(공백 포함)가 200자 이하인 경우
F		- 글자 수와 상관없이 문제와 관계없는 내용을 기술한 경우 - 답안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문제 3]

등급		채점 기준
A	A+	- 내용 측면에서 아래 세 가지를 모두, 명확하게 전달한 경우 - W가 처한 상황은 이상과 현실간에 괴리가 있음 - 이런 딜레마 속에서 W가 내린 결정은 현실의 조건을 감안한 결정임 - 과잉금지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이상을 제한하려 할 때 지켜야 하는 원칙임 - W의 결정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네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음 - 답안의 내용뿐만 아니라 표현, 문법, 단락 구성 등에 있어 오류가 (거의) 없는 경우 - 답안의 가독성(readability)이 매우 높은 경우
	A0	- 내용 측면에서 A+ 기준을 충족하나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어휘 사용이 다소 부정확함 - 관용구, 표현 등이 일부 부자연스러움 - 문장 간 연결이 다소 매끄럽지 못함 - 단락 구분에 작은 오류가 있음
B	B+	내용 측면에서 A+ 기준을 대체로 충족하나 메시지 전달이 간단명료하지 않은 경우
	B0	- 내용 측면에서 B+ 기준에 해당하고,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어휘 사용이 전반적으로 부정확함 - 관용구, 표현 등이 전반적으로 부자연스러움 - 문장 간 연결이 전반적으로 매끄럽지 못함 - 단락 구분에 오류가 많음
C		- 핵심적 내용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진 경우 - 어휘, 관용구, 표현, 문장 간 연결, 가독성 등에서 큰 문제가 없더라도 핵심 명제가 하나라도 누락되면 C등급 이하로 채점
D		- 핵심적 내용 중 두 개가 빠졌거나 불분명하게 전달된 경우 - 글자 수(공백 포함)가 250자 이하인 경우
F		- 주어진 세 자료의 핵심 내용을 모두 파악하지 못한 경우 - 문제와 관계없는 내용을 기술한 경우 - 글자 수(공백 포함)가 150자 이하인 경우

[문제 1]

이상과 현실 중 어느 쪽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가), (라)의 인물은 이상지향형 인간으로, (나), (다)의 인물은 현실지향형 인간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의 커즈와일은 인공일반지능이 인간지능을 넘어서는 특이점이 오면 인류의 이상세계가 도래할 것이라고 믿는 이상지향형 인간이다. (라)의 왕망은 현실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유교적 이념을 토대로 급진적 개혁을 추진한 이상지향형 인간이다. 한편 (나)의 마키아벨리는 가상 국가에 대한 논의가 현실 조건을 간과했음을 비판하면서, 군주에게는 현실에 따라 악해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현실지향형 인간이다. (다)의 방삼복은 모두가 기뻐하는 해방의 순간에도 오직 자신에게 현실적으로 이득이 되는지만을 따진다는 점에서 현실지향형 인간이다. (396자)

[문제 2]

<보기>는 기본적으로 섞이기 힘든 식초와 식용유를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에 빗대어 설명한다. 식초와 식용유는 그대로 두면 자연스럽게 분리되기 때문에 좋은 비네그레트를 만들려면 둘을 휘저어 섞어야 한다. 이처럼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상만으로는 부족하며, 현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라)의 왕망은 유교적 이상주의 실현을 위한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현실 조건을 무시한 결과 백성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여 결국 개혁에 실패했다. 반면 (마)에서 유토피아에 관한 학문인 경제학을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은 유토피아의 실질적 조건인 물질적 행복을 구현하기 위해 현실적이고 냉철한 분석을 한다. 이런 점에서 경제학자들은 현실 조건을 무시한 왕망과 차이가 있다. 이 두 가지 사례를 종합하여 볼 때, 현실적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이상주의는 현실 속에서 힘을 발휘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445자)

※ 영어 <보기>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상과 현실은 식용유와 식초처럼 완전히 융해되지 않고 가만히 두면 저절로 분리된다. 좋은 비네그레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식용유와 식초를 계속 저어줘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는 서로 섞여야 하며, 어느 하나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상에 대한 열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상과 동떨어진 현실 세계에서 리더가 힘을 발휘하려면 자신을 이끌 수 있는 냉철한 현실주의가 필요하다.

*비네그레트: 식초에 갖가지 허브를 넣어 만든 샐러드용 드레싱

[문제 3]

인권보호단체 W는 이상적으로는 인권을 침해하는 독재정권을 비판하면서 기아 및 전염병에 시달리는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독재국가 A를 비판하는 성명에 동참할 경우, A국 어린이들을 도울 수 없는 상황이다. W는 결국 비판 성명에 동참하는 대신 A국에 입국하여 어린이들을 돕기로 결정한다. W가 내린 현실적인 결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국가가 고려해야 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용하여 그 타당성을 추론할 수 있다. 첫째, W의 결정은 어린이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목적의 정당성에 부합한다. 둘째, 국제단체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A국 어린이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에 부합한다. 셋째, 입국해서 활동하는 것 외에 어린이들을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부합한다. 넷째, 공동성명에 동참해서 얻는 이익보다 어린이들의 생명을 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 크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시킨다. (494자)

가. 문제지



한국외국어대학교 2023학년도 논술전형
논술고사 문제지 (자연계)
2022. 11. 26(토) [오전] 10:00 ~ 11:30

고사실번호		지원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	--	--------	--	------	--	----	--

[유의사항]

1. 시험 시간은 90분입니다.
2. 답안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볼펜, 연필, 또는 샤프를 사용해야 합니다.
3. 반드시 문항별 답안지 작성영역에 답안을 기재해야 합니다.
4. (띄어쓰기 포함) 답안의 정해진 작성 분량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답안 영역에 작성한 내용만 인정됩니다.
5. 답안에 자신을 드러내는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답안지에 반드시 풀이과정 또는 증명과정을 제시하시오.

[문제 1] 모든 실수 x 에 대하여 이차부등식

$$x^2 - (4\cos\theta)x + 1 \geq 0$$

이 성립하도록 하는 θ 의 값의 범위가 $\alpha \leq \theta \leq \beta$ 일 때, $\alpha + \beta$ 의 값을 구하시오. (단, $0 \leq \theta \leq \pi$) (9점)

[문제 2] 다항함수 $f(x)$ 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f'(2)$ 의 값을 구하시오. (9점)

(가) $\lim_{x \rightarrow \infty} \frac{f(x)}{2x^3 + 5x + 1} = 1$

(나) $\lim_{x \rightarrow 0} \frac{f'(x)}{x} = 2$

[문제 3] 좌표평면 위의 점 $P(0, 3)$ 과 곡선 $y = \frac{x^2}{4} (-1 \leq x \leq 3)$ 위의 점 Q 에 대해 $\overline{PQ}$ 의 최댓값을 a , 최솟값을 b 라고 하자. 이 때, $a^2 \times b^2$ 의 값을 구하시오. (9점)

[문제 4] 다항함수 $f(x)$ 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f(2)$ 의 값을 구하시오. (9점)

- (가) $f(x)$ 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삼차함수이다.
- (나) $f(0) = 8$
- (다) 모든 실수 x 에서 연속인 어떤 함수 $g(x)$ 에 대하여 $f(x) = 3 + \int_1^x (x - 2 + t)g(t)dt$ 이다.

[문제 5]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n 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10점)

어떤 실수 r 에 대해 $4^r - 2^{r + \frac{10}{n}} = -1$ 이고, $4^r + 4^{-r}$ 은 자연수이다.

[문제 6] 두 양수 a 와 b 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

- (가) $\log a = m + \alpha$ (단, m 은 정수, $0 \leq \alpha < 1$)
- (나) $\log b = n + \beta$ (단, n 은 정수, $0 \leq \beta < 1$)
- (다) 점 $P(m, n)$ 과 점 $Q(\alpha, \beta)$ 는 모두 제1사분면의 점이다.
- (라) 점 P는 곡선 $y = \frac{18}{x}$ 위에 있다.
- (마) 점 Q는 직선 $y = -x + 1$ 위에 있다.

$a \times b$ 의 최댓값과 최솟값의 곱이 10^k 일 때, k 의 값을 구하시오. (10점)

[문제 7] 두 함수

$f(x) = -4x(x + 3)(x - 3), \quad g(x) = -16|x| + 48$

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10점)

[문제 8] 모든 실수 x 에서 연속인 함수 $f(x)$ 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

- (가) $\int_0^1 f(x)dx < 0$
- (나) $\int_{2020}^{2024} f(x)dx = 130$
- (다) $\int_{2022}^{2024} f(x)dx = 90$
- (라) 수열 $\{a_n\}$ 이 $a_n = \int_0^n f(x)dx$ ($n = 1, 2, 3, \dots$)으로 정의될 때, $\{a_n\}$ 은 등비수열이다.

이 때, 등비수열 $\{a_n\}$ 의 공비의 값을 구하시오. (10점)

[문제 9] 두 실수 a 와 b 에 대하여 실수 $a \odot b$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a \odot b = \begin{cases} a - b & (a \geq b) \\ 0 & (a < b) \end{cases}$$

이 때, 방정식

$(\sin \theta \odot \cos \theta) + (\cos \theta \odot (1 - \cos \theta)) = \sin \theta$

를 만족시키는 θ 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단, $\frac{\pi}{4} \leq \theta \leq \frac{\pi}{2}$) (12점)

[문제 10] 수열 $\{a_n\}$ 은 다음과 같이 귀납적으로 정의된다.

$$a_1 = 1, \quad a_{n+1} = a_n^3 + 3a_n \quad (n = 1, 2, 3, \dots)$$

모든 자연수 n 에 대하여 정수 $a_n^2 + 2$ 는 3^n 의 배수임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시오. (12점)

나. 문항 해설 및 예시 답안

[문제 1]

(i) 모든 실수 x 에 대해 부등식 $x^2 - (4\cos\theta)x + 1 \geq 0$ 이 성립하려면 이차방정식 $x^2 - (4\cos\theta)x + 1 = 0$ 의 판별식 D 가 $D \leq 0$ 를 만족해야 한다. (3점)

(ii) 즉, $D = 16\cos^2\theta - 4 \leq 0$ 이어야 하고, 이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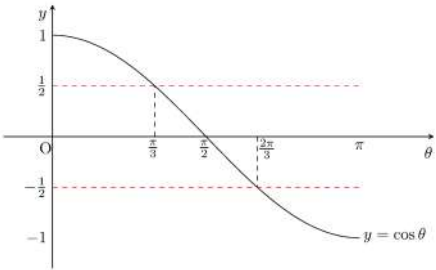
$$-\frac{1}{2} \leq \cos\theta \leq \frac{1}{2} \quad \text{----- (1)}$$

를 얻는다. (3점)

(iii) $0 \leq \theta \leq \pi$ 에서 함수 $y = \cos\theta$ 의 그래프를 고려해 볼 때,

부등식 (1)이 성립하는 θ 의 범위는 $\frac{\pi}{3} \leq \theta \leq \frac{2\pi}{3}$ 이다.

따라서 $\alpha = \frac{\pi}{3}$, $\beta = \frac{2\pi}{3}$ 이고, $\alpha + \beta = \pi$ 이다. (3점)



[문제 2]

(i) 조건 (가)에 의해

$$f(x) = 2x^3 + ax^2 + bx + c \quad (\text{단, } a, b, c \text{ 는 상수}) \quad \text{----- (1)}$$

이다. (2점)

(ii) 조건 (나)에서 $x \rightarrow 0$ 일 때 $\frac{f'(x)}{x}$ 의 극한값이 존재하고 (분모) $\rightarrow 0$ 이므로, (분자) $\rightarrow 0$ 이어야 한다.

따라서 $f'(0) = 0$ 이고, (1)에서 $f'(x) = 6x^2 + 2ax + b$ 이므로 $b = 0$ 이다. (3점)

(iii) $f'(x) = 6x^2 + 2ax$ 를 조건 (나)에 대입하면

$$2 = \lim_{x \rightarrow 0} \frac{f'(x)}{x} = \lim_{x \rightarrow 0} (6x + 2a) = 2a$$

이고, $a = 1$ 을 얻는다. (3점)

(iv) $f'(x) = 6x^2 + 2x$ 이므로 $f'(2) = 28$ 이다. (1점)

[문제 3]

(i) 점 $P(0, 3)$ 과 곡선 위의 점 $Q(x, \frac{x^2}{4})$ (단, $-1 \leq x \leq 3$)에 대해 $f(x) = \overline{PQ}^2$ 이라고 하면

$$f(x) = (x-0)^2 + (\frac{x^2}{4}-3)^2 = \frac{x^4}{16} - \frac{x^2}{2} + 9$$

이다. (1점)

(ii) $f(x)$ 를 x 에 대해 미분하면 $f'(x) = \frac{x^3}{4} - x = \frac{x}{4}(x-2)(x+2)$ 이고, $-1 < x < 3$ 에서 $f'(x) = 0$ 인 x 는 0, 2이다. (3점)

(iii) 따라서 $-1 \leq x \leq 3$ 의 범위에서 $f(x)$ 의 최댓값과 최솟값은 다음 값들 중에서 찾으면 된다.

$$f(-1) = \frac{137}{16}, \quad f(0) = 9, \quad f(2) = 8, \quad f(3) = \frac{153}{16}$$

즉, $f(x)$ 의 최댓값은 $\frac{153}{16}$ 이고, 최솟값은 8이다. (3점)

(iv) $\overline{PQ}$ 의 최댓값 a 와 최솟값 b 는 각각 $f(x)$ 의 최댓값의 양의 제곱근과 최솟값의 양의 제곱근이다.

결국 $a^2 \times b^2 = \frac{153}{16} \times 8 = \frac{153}{2}$ 이다. (2점)

[문제 4]

(i) 조건 (가)에 의해 $f(x) = x^3 + ax^2 + bx + c$ (단, a, b, c 는 상수)이고, 조건 (나)에 의해 $8 = f(0) = c$ 이다. 따라서

$$f(x) = x^3 + ax^2 + bx + 8 \quad \text{----- (1)}$$

이다. (1점)

(ii) 조건 (다)의 식에 $x = 1$ 을 대입하면 $f(1) = 3$ 이 되고, (1)로부터

$$1 + a + b + 8 = 3 \quad \text{----- (2)}$$

을 얻는다. (2점)

(iii) 조건 (다)의 식을 $f(x) = 3 + (x-2) \int_1^x g(t)dt + \int_1^x tg(t)dt$ 로 쓰고 양변을 x 에 대해 미분하면

$$f'(x) = \int_1^x g(t)dt + (x-2)g(x) + xg(x) = \int_1^x g(t)dt + 2(x-1)g(x)$$

가 된다. 여기에 $x = 1$ 을 대입하면 이 $f'(1) = 0$ 되고, (1)로부터 $f'(x) = 3x^2 + 2ax + b$ 이므로

$$3 + 2a + b = 0 \quad \text{----- (3)}$$

을 얻는다. (4점)

(iv) (2)와 (3)을 연립하면 $a = 3$, $b = -9$ 를 찾고, $f(x) = x^3 + 3x^2 - 9x + 8$ 이 된다. 따라서 $f(2) = 10$ 이다. (2점)

[문제 5]

(i) 자연수 n 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하자. 식 $4^r - 2^{r+\frac{10}{n}} = -1$ 의 양변에 2^{-r} 을 곱해서

$$2^r + 2^{-r} = 2^{\frac{10}{n}}$$

을 얻는다. 또한, 양변을 제곱해서

$$4^r + 4^{-r} = 2^{\frac{20}{n}} - 2 \quad \text{----- (1)}$$

를 찾는다. (4점)

(ii) 문제의 조건에서 $4^r + 4^{-r}$ 은 자연수이므로 (1)에 의해 $2^{\frac{20}{n}} - 2$ 는 자연수이다.

2 는 어떤 자연수의 거듭제곱수가 아니므로 $2^{\frac{20}{n}} - 2$ 이 자연수라는 것은 n 이 20 의 약수이고 $2^{\frac{20}{n}} > 2$ 라는 것이다. 가능한 n 은 1, 2, 4, 5, 10 이다. (4점)

(iii) 역으로, 자연수 n 이 1, 2, 4, 5 또는 10 이라고 하자. 그러면 $2^{\frac{10}{n}} \geq 2^{\frac{10}{10}} = 2$ 이다.

함수 $f(x) = 2^x + 2^{-x}$ 은 $f(0) = 2$ 를 만족하고, x 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함숫값 $f(x)$ 도 한없이 커지므로 $f(r) = 2^{\frac{10}{n}}$ 이 되는 0 이상의 실수 r 이 존재한다. 즉, $2^r + 2^{-r} = 2^{\frac{10}{n}}$ 이고, 이로부터

$$4^r - 2^{r+\frac{10}{n}} = -1, \quad 4^r + 4^{-r} = 2^{\frac{20}{n}} - 2$$

가 성립한다. 게다가 $2^{\frac{20}{n}} - 2$ 는 자연수이다. 따라서 n 은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킨다. (1점)

(iv) 결국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 은 정확히 1, 2, 4, 5, 10 이고, 이 값들을 더하면 22 이다. (1점)

[문제 6]

(i) 조건 (가), (나), (다)에서 m 과 n 은 자연수이고, $0 < \alpha < 1$, $0 < \beta < 1$ 이다. (1점)

(ii) 조건 (라)로부터 $n = \frac{18}{m}$, 즉 $mn = 18$ 을 얻는다. 가능한 자연수 순서쌍 (m, n) 은

$$(m, n) = (1, 18), (2, 9), (3, 6), (6, 3), (9, 2) \text{ 또는 } (18, 1) \quad \text{----- (1)}$$

이다. (2점)

(iii) 조건 (마)로부터 $\beta = -\alpha + 1$, 즉

$$\alpha + \beta = 1 \text{ ----- (2)}$$

을 얻는다. (1점)

(iv) 다음을 유도한다.

$$\begin{aligned} ab &= 10^{\log ab} = 10^{\log a + \log b} \\ &= 10^{(m+\alpha) + (n+\beta)} \quad ((\text{가}), (\text{나}) \text{에 의해}) \\ &= 10^{(m+n)+1} \quad ((2) \text{에 의해}) \end{aligned}$$

(3점)

(v) 따라서 (1)에 의해 ab 의 최댓값은 $(m, n) = (1, 18)$ 또는 $(18, 1)$ 일 때 10^{20} 이고, ab 의 최솟값은 $(m, n) = (3, 6)$ 또는 $(6, 3)$ 일 때 10^{10} 이다. 두 값의 곱인 10^k 은 10^{30} 이고, 결국 $k = 30$ 이다.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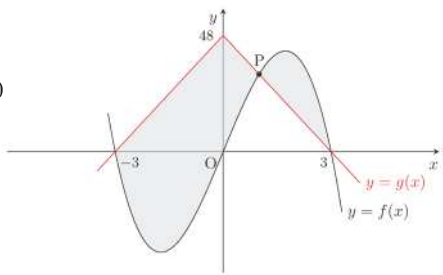
[문제 7]

(i) 두 함수 $f(x)$ 와 $g(x)$ 의 그래프는 오른쪽과 같다.

제1사분면에서의 교점 P의 x 좌표를 찾기 위해 식 $f(x) = g(x)$ 를 세우면

$$-4x(x+3)(x-3) = -16x+48, \text{ 즉 } (x-3)(x+4)(x-1) = 0$$

이다. 따라서 점 P의 x 좌표는 1이다. (3점)



(ii) 두 함수 $f(x)$ 와 $g(x)$ 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int_{-3}^0 (g(x) - f(x)) dx + \int_0^1 (g(x) - f(x)) dx + \int_1^3 (f(x) - g(x)) dx \\ &= \int_{-3}^0 \{(16x+48) - (-4x^3+36x)\} dx + \int_0^1 \{(-16x+48) - (-4x^3+36x)\} dx + \int_1^3 \{(-4x^3+36x) - (-16x+48)\} dx \\ &= \int_{-3}^0 (4x^3 - 20x + 48) dx + \int_0^1 (4x^3 - 52x + 48) dx + \int_1^3 (-4x^3 + 52x - 48) dx \\ &= [x^4 - 10x^2 + 48x]_{-3}^0 + [x^4 - 26x^2 + 48x]_0^1 + [-x^4 + 26x^2 - 48x]_1^3 \\ &= 153 + 23 + 32 \\ &= 208 \end{aligned}$$

(7점)

[문제 8]

(i) 등비수열 $\{a_n\}$ 의 공비를 r 이라고 하면

$$a_1 = \int_0^1 f(x) dx, \quad a_n = \int_0^n f(x) dx = a_1 r^{n-1} \quad (n = 1, 2, 3, \dots)$$

이다. 그러면 조건 (나)와 (다), 정적분의 성질로부터

$$130 = \int_{2020}^{2024} f(x) dx = \int_0^{2024} f(x) dx - \int_0^{2020} f(x) dx = a_{2024} - a_{2020} = a_1 r^{2023} - a_1 r^{2019} = a_1 r^{2019} (r^4 - 1), \text{ ----- (1)}$$

$$90 = \int_{2022}^{2024} f(x) dx = \int_0^{2024} f(x) dx - \int_0^{2022} f(x) dx = a_{2024} - a_{2022} = a_1 r^{2023} - a_1 r^{2021} = a_1 r^{2021} (r^2 - 1) \text{ ----- (2)}$$

을 얻는다. (5점)

(ii) (1)과 (2)로부터 다음을 유도한다. $\frac{130}{90} = \frac{a_1 r^{2019} (r^4 - 1)}{a_1 r^{2021} (r^2 - 1)} = \frac{r^2 + 1}{r^2}$

따라서 $r^2 = \frac{9}{4}$ 이고, $r = \frac{3}{2}$ 또는 $-\frac{3}{2}$ 이다.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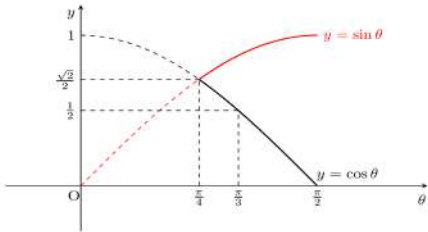
(iii) 조건 (가)에 의해 $a_1 < 0$ 이므로 (1)로부터 $r = -\frac{3}{2}$ 이어야 함을 알 수 있다. (2점)

[문제 9]

(i) $\frac{\pi}{4} \leq \theta \leq \frac{\pi}{2}$ 에서 $\sin \theta \geq \cos \theta$ 이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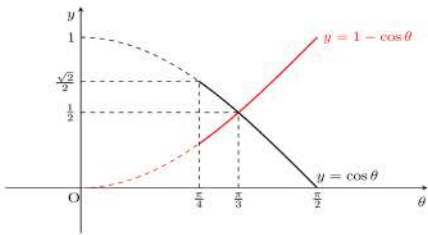
$$\sin \theta \odot \cos \theta = \sin \theta - \cos \theta$$

이다. (2점)



(ii) $\frac{\pi}{4} \leq \theta \leq \frac{\pi}{2}$ 에서 두 함수 $y = \cos \theta$ 와

$y = 1 - \cos \theta$ 의 그래프는 오른쪽과 같다.



$\frac{\pi}{4} \leq \theta \leq \frac{\pi}{3}$ 일 때는 $\cos \theta \geq 1 - \cos \theta$ 이므로, 문제의 방정식 $(\sin \theta \odot \cos \theta) + (\cos \theta \odot (1 - \cos \theta)) = \sin \theta$ 는 $(\sin \theta - \cos \theta) + (\cos \theta - (1 - \cos \theta)) = \sin \theta$, 즉 $\cos \theta = 1$

이 된다. 하지만 $\frac{\pi}{4} \leq \theta \leq \frac{\pi}{3}$ 에서 $\cos \theta = 1$ 을 만족하는 θ 는 존재하지 않는다. (5점)

(iii) $\frac{\pi}{3} < \theta \leq \frac{\pi}{2}$ 일 때는 $\cos \theta < 1 - \cos \theta$ 이므로, 문제의 방정식 $(\sin \theta \odot \cos \theta) + (\cos \theta \odot (1 - \cos \theta)) = \sin \theta$ 는 $(\sin \theta - \cos \theta) + 0 = \sin \theta$, 즉 $\cos \theta = 0$

이 된다. $\frac{\pi}{3} < \theta \leq \frac{\pi}{2}$ 에서 $\cos \theta = 0$ 을 만족하는 θ 는 $\frac{\pi}{2}$ 이다. (5점)

(iv) 따라서 $\frac{\pi}{4} \leq \theta \leq \frac{\pi}{2}$ 에서 문제의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θ 는 $\frac{\pi}{2}$ 뿐이다.

[문제 10]

(i) $n = 1$ 일 때, $a_n^2 + 2 = 1^2 + 2 = 3$ 이고 $3^n = 3$ 이므로 $a_n^2 + 2$ 는 3^n 의 배수이다. (2점)

(ii) $n = k$ (≥ 1)일 때, $a_n^2 + 2$ 가 3^n 의 배수임을 가정하자. 그러면

$$a_k^2 + 2 = 3^k b \text{ ----- (1)}$$

를 만족시키는 정수 b 가 존재한다. (3점)

(iii) 다음을 유도한다.

$$\begin{aligned} a_{k+1}^2 + 2 &= (a_k^3 + 3a_k)^2 + 2 && (\text{수열 } \{a_n\} \text{의 귀납적 정의에 의해}) \\ &= a_k^2 (a_k^2 + 3)^2 + 2 \\ &= (3^k b - 2)(3^k b + 1)^2 + 2 && ((1) \text{에 의해}) \\ &= (3^k b - 2)(3^{2k} b^2 + 2 \cdot 3^k b + 1) + 2 \\ &= (3^{3k} b^3 + 2 \cdot 3^{2k} b^2 + 3^k b - 2 \cdot 3^{2k} b^2 - 4 \cdot 3^k b - 2) + 2 \\ &= 3^{3k} b^3 - 3^{k+1} b \\ &= 3^{k+1} (3^{2k-1} b^3 - b) \end{aligned}$$

이는 $a_{k+1}^2 + 2$ 가 3^{k+1} 의 배수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n = k + 1$ 일 때도 $a_n^2 + 2$ 는 3^n 의 배수이다. (7점)

(iv) 수학적 귀납법으로부터 모든 자연수 n 에 대하여 $a_n^2 + 2$ 는 3^n 의 배수이다.

다. 채점 기준

[문제 1]

단계	채점 기준	배점
도입	문제의 이차부등식이 성립할 조건은 판별식 D 가 $D \leq 0$ 라는 것을 파악한다.	3점
전개	$D = 16 \cos^2 \theta - 4 \leq 0$ 로부터 $-\frac{1}{2} \leq \cos \theta \leq \frac{1}{2}$ 를 얻는다.	3점
결론	$\frac{\pi}{3} \leq \theta \leq \frac{2\pi}{3}$ 임을 언급하고, $\alpha + \beta = \pi$ 라는 결론을 내린다.	3점
채점 유의 사항	1. 함수 $y = \cos \theta$ 의 그래프는 그리지 않아도 된다.	
	2. 타당한 설명을 통해 온전히 답을 얻었다면, 다른 방법이라도 정답으로 인정한다.	
	3. 타당한 설명이 없이 답만 기술하는 경우 0점 처리한다.	

[문제 2]

단계	채점 기준	배점
도입	조건 (가)로부터 $f(x) = 2x^3 + ax^2 + bx + c$ 를 얻는다.	2점
전개	조건 (나)로부터 $f'(0) = 0$ 임을 파악해서 $b = 0$ 을 찾는다. $f'(x) = 6x^2 + 2ax$ 를 조건 (나)에 대입해서 $a = 1$ 을 얻는다.	6점
결론	$f'(x) = 6x^2 + 2x$ 로부터 $f'(2) = 28$ 을 계산한다.	1점
채점 유의 사항	1. 타당한 설명을 통해 온전히 답을 얻었다면, 다른 방법이라도 정답으로 인정한다.	
	2. 단순한 계산 실수와 같은 사소한 실수는 건당 1점씩 감점한다.	
	3. 타당한 설명이 없이 답만 기술하는 경우 0점 처리한다.	

[문제 3]

단계	채점 기준	배점
도입	점 $Q(x, \frac{x^2}{4})$ 에 대해 함수 $f(x) = \overline{PQ}^2$ 의 식을 쓰고, $f'(x) = 0$ 인 x 를 찾는다.	4점
전개	$f'(x) = 0$ 인 x 와 끝점에서의 함숫값을 계산해서 $f(x)$ 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찾는다.	3점
결론	$a^2 \times b^2 = \frac{153}{2}$ 을 계산한다.	2점
채점 유의 사항	1. 수학 II의 범위를 벗어난 합성함수의 미분 또는 제곱근의 미분을 하더라도 풀이로 인정한다.	
	2. 단순한 계산 실수와 같은 사소한 실수는 건당 1점씩 감점한다.	
	3. 타당한 설명이 없이 답만 기술하는 경우 0점 처리한다.	

[문제 4]

단계	채점 기준	배점
도입	조건 (가)와 (나)로부터 $f(x) = x^3 + ax^2 + bx + 8$ 을 얻는다.	1점
전개	조건 (다)의 식으로부터 $f(1) = 3$ 을 얻고, 이로부터 $1 + a + b + 8 = 3$ 을 찾는다. 또한, 조건 (다)의 식을 미분해서 $f'(1) = 0$ 을 얻고, 이로부터 $3 + 2a + b = 0$ 를 찾는다.	6점
결론	a 와 b 에 대한 두 식을 연립하여 $a = 3$, $b = -9$ 를 구하고, $f(2) = 10$ 을 계산한다.	2점
채점 유의 사항	1. 타당한 설명을 통해 온전히 답을 얻었다면, 다른 방법이라도 정답으로 인정한다.	
	2. 단순한 계산 실수와 같은 사소한 실수는 건당 1점씩 감점한다.	
	3. 타당한 설명이 없이 답만 기술하는 경우 0점 처리한다.	

[문제 5]

단계	채점 기준	배점
도입	자연수 n 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할 때 식 $4^r - 2^{\frac{r}{n} + \frac{10}{n}} = -1$ 을 변형하여 $4^r + 4^{-r} = 2^{\frac{20}{n}} - 2$ 를 얻는다.	4점
전개	$2^{\frac{20}{n}} - 2$ 가 자연수가 될 n 은 1, 2, 4, 5, 10임을 찾는다. 역으로, n 이 1, 2, 4, 5 또는 10일 때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언급한다.	5점
결론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n 의 값의 합은 22임을 계산한다.	1점
채점 유의 사항	1. 타당한 설명을 통해 온전히 답을 얻었다면, 다른 방법이라도 정답으로 인정한다.	
	2. 단순한 계산 실수와 같은 사소한 실수는 건당 1점씩 감점한다.	
	3. 타당한 설명이 없이 답만 기술하는 경우 0점 처리한다.	

[문제 6]

단계	채점 기준	배점
도입	조건 (라)에서 가능한 자연수 순서쌍 (m, n) 을 찾고, 조건 (마)로부터 $\alpha + \beta = 1$ 을 얻는다.	4점
전개	$ab = 10^{m+n+1}$ 임을 유도한다.	3점
결론	ab 의 최댓값은 10^{20} 이고, 최솟값은 10^{10} 임을 밝힌다. 이로부터 $k = 30$ 을 얻는다.	3점
채점 유의 사항	1. 타당한 설명을 통해 온전히 답을 얻었다면, 다른 방법이라도 정답으로 인정한다.	
	2. 단순한 계산 실수와 같은 사소한 실수는 건당 1점씩 감점한다.	
	3. 타당한 설명이 없이 답만 기술하는 경우 0점 처리한다.	

[문제 7]

단계	채점 기준	배점
도입	두 함수의 그래프의 제1사분면에서의 교점의 x 좌표를 찾는다.	3점
전개	두 함수의 크기관계를 고려하여 적분구간을 나눠 정적분 식을 세우고, 계산을 한다.	7점
결론		

채점 유의 사항	1. 함수의 그래프는 그리지 않아도 된다.
	2. 단순한 계산 실수와 같은 사소한 실수는 건당 1점씩 감점한다.
	3. 타당한 설명이 없이 답만 기술하는 경우 0점 처리한다.

[문제 8]

단계	채점 기준	배점
도입	수열 $\{a_n\}$ 의 공비를 r 이라고 할 때, 주어진 조건들과 정적분의 성질을 이용해서 두 개의 식 $130=a_1r^{2019}(r^4-1)$ 과 $90=a_1r^{2021}(r^2-1)$ 을 유도한다.	5점
전개	위에서 얻은 두 식으로부터 $r^2=\frac{9}{4}$ 를 찾는다.	3점
결론	조건 (가)를 통해 $r=-\frac{3}{2}$ 임을 결론내린다.	2점

채점 유의 사항	1. 타당한 설명을 통해 온전히 답을 얻었다면, 다른 방법이라도 정답으로 인정한다.
	2. 단순한 계산 실수와 같은 사소한 실수는 건당 1점씩 감점한다.
	3. 타당한 설명이 없이 답만 기술하는 경우 0점 처리한다.

[문제 9]

단계	채점 기준	배점
도입	$\frac{\pi}{4}\leq\theta\leq\frac{\pi}{2}$ 에서 $\sin\theta\odot\cos\theta=\sin\theta-\cos\theta$ 임을 찾는다.	2점
전개	$\frac{\pi}{4}\leq\theta\leq\frac{\pi}{3}$, $\frac{\pi}{3}<\theta\leq\frac{\pi}{2}$ 일 때 각각 문제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θ 의 값을 찾는다.	10점
결론		

채점 유의 사항	1. 그래프는 그리지 않아도 된다.
	2. 타당한 설명을 통해 온전히 답을 얻었다면, 다른 방법이라도 정답으로 인정한다.
	3. 타당한 설명이 없이 답만 기술하는 경우 0점 처리한다.

[문제 10]

단계	채점 기준	배점
도입	$n=1$ 일 때, 명제가 참임을 보인다.	2점
전개	$n=k$ 일 때, 명제가 참임을 가정한다. 이로부터 $a_k^2+2=3^kb$ 표현을 한다.	3점
결론	$n=k+1$ 일 때도 명제가 참임을 유도한다.	7점

채점 유의 사항	1. 수학적 귀납법이 아닌 다른 증명은 인정하지 않는다.
	2. 문항해설의 (iv) 부분은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3. 단순한 계산 실수와 같은 사소한 실수는 건당 1점씩 감점한다.

